■ 민족문화연구 제108호(2025.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007-043.
http://doi.org/10.17948/kcs.2025..108.007

일본 소재 〈별숙향전〉 계열의 문헌적 성격 고찰*

차충환(車充煥)**

목 차

1. 머리말
2. 세 이본의 서지 및 서술 표현
3. 나카무라본, 오카쿠라본, 동양문고본의 관련성
4.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의 관련성
5. 〈별숙향전〉 계열의 형성 과정
6.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일본에 소장된 〈숙향전〉 이본 중에서 나카무라본, 오카쿠라본, 동양문고본의 서지사항, 서술 표현 및 내용, 세 이본의 상호 관계 등을 고찰하였다. 나카무라본은 조선어 통사의 마지막 세대 중 한 사람인 나카무라 쇼지로가 1875년과 1876년에 부산 초량 왜관에서 필사한 것으로서, 상·하 2책으로 되어 있으며, 제명은 "別淑香傳"이다. 이 나카무라본은 〈숙향전〉 이본 중에서 다른 이본에 비해 서술 행문 및 내용 구성 면에서 가장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 선본(善本)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오카쿠라본은 오카쿠라 요시사부로가 구득했거나 직접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용의 후반부에서 축약 및 생략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절략본(節略本)이다. 동양문고본은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A2A01021587)
**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된 필사본으로서, 내용 및 구성 면에서 오카쿠라본과 거의 동일하다. 그것은 각각의 필사자가 동일 선행본을 저본으로 필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은 나카무라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 이본의 서술 행문을 비교해 보면, 서로 일치하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일치성은 이들 세 이본의 뿌리가 동일하였기 때문이다. 세 이본의 공통 선행본이 존재했고, 그 선행본에서 나카무라본과 어떤 절략본이 먼저 생겼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다시 그 절략본에서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이 각각 파생되었기 때문에, 세 이본이 지금과 같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수 있었다. 나카무라본은 완본이지만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은 절략본이라는 점, 완본인 나카무라본의 제명이 "別淑香傳"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 세 이본을 '〈별숙향전〉 계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일본, 별숙향전, 나카무라본, 오카쿠라본, 동양문고본, 절략본, 별숙향전 계열

1. 머리말

주지하듯이 〈숙향전〉은 조선시대 국문소설의 대표작 중 하나로서, 많은 이본이 현전하고 있고 지금도 왕성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작품과 달리 〈숙향전〉은 일본에도 10여 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것은 〈숙향전〉이 일본인 통사의 조선어 학습서 중 하나였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제1세대 통사를 대표하는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 제2세대 통사인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 1754-1831), 통사의 마지막 세대 중 한 사람인 나카무라 쇼지로(中村庄次郎, 1855-1932) 등이 모두 〈숙향전〉을 필사하면서 당시의 조선어를 학습하였고, 그들이 〈숙향전〉 필사본을 후대 통사에게 전하거나 일본으로 가져간 결과, 지금까지 〈숙향전〉이 일본에 남아 있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그동안 학계에서도 일본 소장 〈숙향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본을 발굴·소개하거나, 그것들과 한국에 있는 이본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여러 특징을 소개한 바 있다.[1)]

그러나 일본 소재 〈숙향전〉 이본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표현이나 내용 비교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본다. 일본 소장본 중, 심수관가 소장본과 교토대학 소장본은 각각의 이본이 완본이 아니라서 정밀한 고찰에 한계가 있으나, 나카무라본[2]과 오카쿠라본[3]은 모두 완본이고, 특히 나카무라본은 〈숙향전〉 전체 이본 중에서 가장 선본(善本)에 속하는 이본으로 판단된다. 또한 나카무라본은 이본 생성과 계통 면에서 오카쿠라본, 그동안 소개되지 않은 동양문고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본이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 소재 〈숙향전〉 이본 중에서, 나카무라본, 오카쿠라본, 동양문고본 등을 대상으로, 각 이본의 서지 및 서술 표현을 살펴보고 아울러 각 이본의 내용 비교를 통해, 세 이본의 개별적 특징과 상호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고찰을 통해 세 이본이 "별숙향전" 계열로 묶일 수 있는 이본 관계임을 밝히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세 종 이본의 서지 정보와 표현, 내용상의 특징을 각각 정리하고, 다음으로 세 이본의 관계를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세 이본의 계보를 알아보고자 한다.[4]

---

1) 일본에 소장된 〈숙향전〉 중에서 그동안 기초적인 고찰이 이루어진 이본은 심수관가(沈壽官家) 소장본 2종, 교토대학 소장본 2종, 도쿄대학 소창문고 소장본 1종(원 소장자는 나카무라 쇼지로), 쯔쿠바대학 소장본 1종(원 소장자는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 1868-1936))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조희웅, 정병설, 차충환 등의 다음 논저에서 고찰되었다. 曺喜雄·松原孝俊, 「『淑香傳』 형성 연대 재고- 일본측 자료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115-151면; 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189-190면; 정병설, 「일본인의 한국어 교재 숙향전-쯔쿠바(筑波) 대학 소장본을 중심으로」, 『문헌과해석』 26, 문헌과해석사, 2004, 99-108면; 차충환, 『숙향전 연구』, 월인, 1999. 그중 조희웅은 심수관가 소장본과 교토대학 소장본의 서지 및 유통 정보를 처음으로 소개하였고, 아울러 심수관가 소장본과 한국 이대본의 어휘 표현을 일부 비교·고찰하여 심수관가 소장본의 고형적 특징을 밝혔다. 정병설은 심수관가 소장본, 교토대학 소장본에다 소창문고 소장본과 쯔쿠바대학 소장본을 추가·고찰하여 각 이본의 서지 및 유통 관련 정보를 소개한 바 있다. 차충환은 심수관가 소장본과 한국의 주요 이본 간 내용을 자세히 비교·고찰한 바 있다. 그러나 소창문고 소장본 등 일본 소재 〈숙향전〉 이본의 내용 및 서술 표현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은 미진한 상태다.

2) 앞으로 '도쿄대학 소창문고 소장본'은 원 소장자를 중시하여 '나카무라본'으로 지칭한다.

3) 앞으로 '쯔쿠바대학 소장본'은 원 소장자를 중시하여 '오카쿠라본'으로 지칭한다.

2. 세 이본의 서지 및 서술 표현

1) 나카무라본의 서지 및 서술 표현

먼저 나카무라본 〈숙향전〉의 서지 사항을 살펴보겠다.[5] 나카무라본은 두 책으로 구성된 필사본으로서, 표지에는 각각 "別淑香傳 乾", "別淑香傳 坤"과 같이 쓰여 있고, 내지에는 각각 "別淑香傳 上", "別淑香傳 下"로 쓰여 있다. 이처럼 나카무라본은 제명이 '別淑香傳'이고 上·下 두 책으로 된 사본임을 알 수 있다.

상권과 하권의 표지와 내지 첫 면을 보면, "中村氏", "中村", "中村招景 所持", "小倉", "小倉藏書" 등의 붉은색 인장이 다수 찍혀 있고, 상권의 마지막 면(80앞)에는 "紀元二千五百三十五年/明治八歲乙亥五月初旬寫之/中村庄次郎"이, 하권의 마지막 면(77앞)에는 "紀元二千五百三六年/明治九歲(?)十一月初旬寫之/中村庄次郎"이 각각 쓰여 있어, 나카무라 쇼지로가 1875년과 1876년에 각각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권의 필사기에는 "乾坤共於艸梁項謄"이란 말도 쓰여 있는데, 이는 나카무라 쇼지로가 초량 왜관에서 필사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상권과 하권의 뒤 표지 안쪽에는 "中村庄次郎翁の寄贈/昭和七年八月 進平"이란 말이 각각 적혀 있는데, 이는 나카무라 쇼지로가 1932년에 자신의 책을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에게 기증했다는 의미이다.[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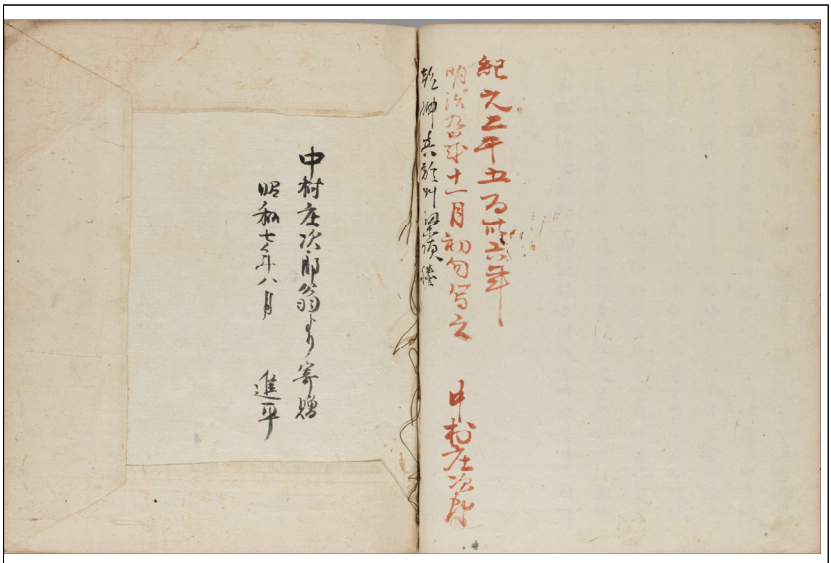
4) 논의 과정에서 어휘 표현이나 서술 행문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 이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바, 주요 타 이본은 심수관가 소장본 2종(심씨a본, 심씨b본으로 지칭함), 이대본, 정문연a본 등이다. 그 중, 심씨a본은 내용의 처음부터 이화정에서 수를 놓는 숙향을 보고 마고할미가 기뻐하는 내용까지만 존재하고, 심씨b본 (上)은 내용의 처음부터 숙향이 사향의 모함을 받아 쫓겨나는 장면까지, 심씨b본 (下)는 숙향이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를 이선이 읽는 장면부터 작품 최종 말미 김전 부부가 승천하기 직전까지의 내용이 각각 존재한다. 심수관가 소장본은 비록 완본은 아니지만 표현과 내용의 측면에서 전체 이본 중 가장 고형에 속하고, 또 나카무라본과 유사성이 높아 비교 대본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 외, 이대본과 정문연a본은 그동안 학계에서 〈숙향전〉의 주요 이본으로 알려진 완본들이다. 이들 심수관가 소장본, 이대본, 정문연a본 등의 내용은 김진영·차충환 편저, 『숙향전전집』1(박이정, 1999)에 실려 있는 원전 입력 자료를 활용하고,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이 책 해당 부분의 면수를 밝힌다. 이하 동일.

5) 나카무라본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사이트(http://kostma.korea.ac.kr/)에 원문 이미지가 탑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활용한다.

6) 나카무라 쇼지로가 오구라 신페이에게 기증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승혜, 「小倉文庫 所藏 나카무라



〈그림 1〉 나카무라본 상권 표지와 첫 면



〈그림 2〉 나카무라본 하권 필사기

쇼지로 資料의 國語學的 考察」, 『일본문화연구』 26, 동아시아일본학회, 2008, 101-130면 참조.

분량을 살펴보면, 상권은 총 79장에 장당 10행인데, 처음부터 70장까지는 행당 22자이고, 71장부터 79장까지는 행당 24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하권은 총 76장, 장당 10행, 행당 23자로서, 행당 글자 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한 상권의 3뒤부터 26뒤까지는 한자어가 행간에 병기되어 있는 형태이나, 그 외 전체 내용은 국한문 혼용으로 필사되어 있다. 물론 국한문 혼용 중에도 중간중간에 한자가 행간에 병기되어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서술 문면을 살펴보겠다. 나카무라본은 내용의 서두에서부터 한문이 섞여 있다. 그것은 필사하는 과정에서 국문 한자어를 한문으로 바꾸어 필사했기 때문이다. 물론 숙향의 아버지 '김전'을 '金琠'으로 표기하다가 뒷부분에는 '김뎐'으로 표기한다든가, '관대'를 '冠帶'로 표기하다가 뒤에서는 '관ᄃᆡ'로 표기하는 사례 등과 같이 반복되는 어휘에 대해서는 국문 그대로 표기한 형태가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한문으로 바꿀 수 있는 어휘는 최대한 한문으로 바꾸면서 필사했다. 몇몇 예를 들어보겠다.

작품 초반에 김전은 벗을 전송하고 돌아오다가 홍수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 부분에 "잇ᄯᅥ 長霖히라"(상, 2앞)는 구절이 있다. 그런데 심씨 a·b본과 나카무라본 계열인 오카쿠라본, 동양문고본 등에는 모두 "쟝마히라"로 되어 있다. 나카무라본에서 '쟝마'를 '長霖'으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長霖'(장림)은 '장마'와 같은 뜻이지만, 음이 같은 것은 아니다. 또 "믈勢 急ᄒᆞ여 그 기동이 마자 ᄲᅥ나매"(상, 2뒤), "琠이 그 기동을 ᄇᆞ리고"(상, 2뒤) 등에서 '기동'은 '기둥'을 말한다. 이렇게 국문으로 '기동'이라고 표기했지만, "瑞瑚 柱츄에 琥珀 기棟을 셰웟고"(상, 42뒤)에서는 '기棟'으로 굳이 한자를 썼다. 여기서 필사자가 한자 변환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바, "글字", "글題", "졔物", "내終을 보리라", "女辺ᄂᆡ"(여편네), "男邊ᄂᆡ"(남편네), "敢히 欺이지 못ᄒᆞ여" 등의 표기에서도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문을 행간에 병기할 때에도 한문으로 표기가 가능하거나 의미상 같은 뜻의 한자가 있으면 일일이 해당 한자를 행간에 병기했다. 예를 들면, "아기阿只"[7], "쳔여셕千餘石 디기地只요", "급急피", "죵從들을", "ᄒᆡ골骸骨이나 갈므쇼셔葬", "들ᄲᅥᄉᆞ오니發覺", "밧ᄉᆞᄅᆞᆷ情男", "ᄀᆞᆫ나희娼女"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승샹丞相 부체夫妻ᄂᆞᆫ 슉향淑香의 ᄒᆞᄂᆞᆫ 일마다 누굿겨 ᄇᆞᄃᆡ 승샹丞相과 ᄀᆞᆺᄐᆞᆫ 가문家門을 ᄀᆞᆯᄒᆡ여”(상, 16뒤-17앞)에서는 “누굿겨”의 행간에 검은 글씨로 “喜悅皃”라고 병기했는데, 이것은 ‘누굿겨’의 의미를 ‘기뻐하는 모양’이라고 이해하고, 그것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 “喜悅皃”를 삽입한 것이다. “城隍堂을 덧내여”(상, 58뒤)의 ‘덧내여’ 옆 행간에 “加罪ᄒᆞ여”라는 말을 병기한 것도 일종의 부연 설명에 해당된다.

이렇게 일일이 한문으로 바꾸거나 병기하다 보니, 한자 변환이나 병기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경우도 더러 나타난다. “尙書의 稱念이 하 嚴俊ᄒᆞ오매”(상, 76앞)의 ‘俊’, “兄優弟恭이라 ᄒᆞ엿ᄉᆞ오니”(상, 79뒤)의 ‘優’, “永春堂의 倍設ᄒᆞ엿ᄃᆞ니”(하, 28앞)의 ‘永’과 ‘倍’, “行粧을 다 일헛ᄉᆞ오니”(하, 58뒤)의 ‘粧’ 등은 글자가 틀린 경우이다. 또한 문맥적 의미를 잘못 파악하여 오류를 범한 경우도 있다. 작품의 내용 중에 사향이 숙향을 모함하여 쫓아내는 과정에서 사향은 숙향에게 “됴흔 옷밥의 ᄊᆞ이여 복福이 도桃 되여 그런 블측不測ᄒᆞᆫ 일을 ᄒᆞ여 하ᄂᆞᆯ ᄀᆞᆺᄐᆞ신 부인夫人조차”(상, 24뒤) 승상의 질책을 받게 하느냐는 서술이 있다. 여기에서 “도桃 되어”는 ‘넘치다’, ‘넘치는데’ 등의 의미인데, ‘桃’자를 병기하는 오류를 범했다. 심씨a본에는 “福이 도 되여”로 표기되어 있고, 이대본에는 “그런 복이 업거날”로 표기되어 있다.[8]

또한 작품 후반부에서 황태후가 병이 나자 황제는 선약을 구해올 사람을 구하는데, 이 장면에서 “皇帝 朝廷 大臣과 百官을 다 모화 堪職ᄒᆞᆫ 사ᄅᆞᆷ을 議論ᄒᆞ더니”(하, 49앞)라는 서술이 있다. 여기에서 “堪職ᄒᆞᆫ”은 ‘선약을 구하러 갈 만한’의 뜻을 지닌 ‘감 직ᄒᆞᆫ’을 한자로 옮긴 것인데, 이는 필사자가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즉, 필사자는 ‘감 직한’을 ‘갈 만한’으로 이해하지 않고 선약을 구해올 ‘직분을 감당할’ 사람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럴듯한 이해이긴 하지만 옳은 것은 아니다. 심씨b본에는 “감즉ᄒᆞ니ᄅᆞᆯ”로 되어 있고 정문연a본에도 “감즉ᄒᆞᆫ 신하를”로 되어 있다. 한문본 〈숙향전〉에도 모두 “可遣之人”[9]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감직ᄒᆞᆫ”은 ‘가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 분명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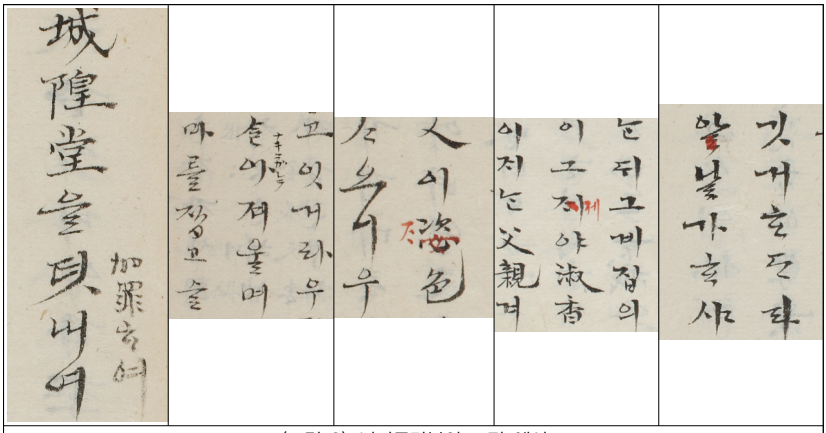
7) 여기서 한문 ‘阿只’는 ‘아기’ 옆의 행간에 표기된 것이다. 이하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8) 정문연a본에는 관련 구절이 없다.

데, 나카무라본의 필사자는 맥락과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나카무라본은 행별로 글자 수를 정확히 맞추어 필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필사자가 매우 정성을 들인 사본임이 여러 점에서 확인된다. 예를 들면, 숙향이 전란 중에 부모와 이별하는 장면에서 "ᄂᆞᆺ출 ᄒᆞᆫ ᄃᆡ 다히고 ᄉᆞᆯ아져 울며"(상, 7뒤)라는 서술이 있는데, 이 중 "ᄉᆞᆯ아져" 옆에 일본어가 병기되어 있다. 이 부분 "ᄉᆞᆯ아져"는 '숨이 막히듯 매우 슬프게' 정도의 의미인데, 의미가 통하는 한자가 떠오르지 않아 그 대신에 일본어로 병기한 듯하다. 이와 같이 행간이나 상단 여백에 일본어가 병기된 모습이 몇 군데 나타난다. 이러한 일본어 병기는 필사 후에 다시 읽으면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필사자는 교정도 면밀히 보았다. 누락된 글자나 문장을 행간에 삽입한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이 때에는 검은 글자로 쓰기도 하고 붉은 글씨로 쓰기도 했다. 또한 틀린 글자나 어구에 대해서, 해당 부분 글자에 일일이 점을 찍거나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행간에 다시 수정한 글자나 어휘를 삽입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이때 점이나 동그라미 표시, 삽입 표기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夫人이 恣色과 才德이 无雙이로되"(상, 46뒤)라는 부분을 보면, '恣'자의 오류를 발견하고 '心'자 위에 붉은색으로 '女'를 덧씌우고, 그 옆 행간에 붉은 글씨로 'ᄌᆞ'를 병기한 형태도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仙이 그ᄌᆡ야 淑香 어든 前後 曲折을 一〃히 엿ᄌᆞᆸ고"(하, 3뒤)라는 서술에서 "그ᄌᆡ야"의 'ᄌᆡ'에 붉은색 점을 찍고 그 옆 행간에 붉은색으로 '제'를 써놓은 모습도 나타난다. 두 사례 모두 정밀한 읽기와 교정의 결과이다. "仙을 게 두면 그 계집을 마디 알닐가 ᄒᆞ샤 下人을 보내여 仙을 ᄃᆞ려오라"(하, 3앞)에서 "알닐가"의 '알'의 'ㄹ'에 붉은 점을 찍어 'ㄹ'을 제거하라는 표시를 한 것도 정밀한 교정의 사례에 해당된다.

9) 장효현·윤재민 외, 『愛情世態小說』,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247면.



〈그림 3〉 나카무라본의 교정 예시

한편 나카무라본은 이상과 같이 어휘나 문장 수준에서 면밀한 교정이 이루어졌으나, 선행 대본에서부터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나카무라본의 필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사본으로서의 한계도 일부 나타난다. 서술 행문을 살펴보면, 어휘가 누락되어 문맥상 약간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10], 다음의 사례와 같이 일부 문장이 누락되어 어색한 행문이 된 경우도 보인다.

> 魏公이 夫人ᄃᆞ려 니ᄅᆞ시되 우리 富貴 天下의 웃듬이요 ᄯᅩᄒᆞᆫ 夫人이 恣色과 才德이 无雙이로되 다만 男女間 子息이 업ᄉᆞ오니 우리 死後의 依托ᄒᆞᆯ 고디 업숩고 父母의 後嗣도 傳ᄒᆞᆯ 고디 업ᄉᆞ오니 내 벼슬이 두 夫人 엇기 足ᄒᆞ온디라 이제 子息 나흘 夫人을 엇고져 ᄒᆞ오니 夫人은 ᄆᆡ야히 녀기디 마ᄅᆞ쇼셔 夫人이 한숨 디고 曰 尙書 威焰의 두 夫人 아녀 열 夫人이라타 못 어드시리잇가 √ 魏公이 笑曰 새 夫人을 어더 ᄯᅩ 無子息ᄒᆞ오면 현마 엇디ᄒᆞ오리잇가(상, 46뒤-47앞)

위 인용문은 이선의 부모인 이위공과 왕부인이 무자(無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이 어색하다. 그것은 '√' 부분에

10) 예를 들어, "슉향淑香이 십삼셰十三歲 되매 부인夫人이 명命ᄒᆞ여 가ᄉᆞ家事을 다 맛디시니 √ 승상丞相 냥위兩位을 지셩至誠으로 셤기며 모든 노비奴婢을 위염威焰과 인덕仁德으로 브리고"(상, 16뒤)의 서술에서, '√' 부분에 '슉향이'가 빠진 사례와 같은 경우이다.

'만약 새 부인을 얻었는데도 무자하면 어떻게 하겠느냐?'의 의미를 지닌 문장이 빠졌기 때문이다.[11]

다음의 예시는 축약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사례이다.

> 龍子 曰 西海 龍王의 가와 啓眼珠 말숨 ᄒᆞ오니 貞烈夫人이 漂津의 와 祭ᄒᆞ실제 술잔의 다마 보내엿노라 ᄒᆞ오니 그 구슬은 ᄇᆞᆯ셔 宅의 갓ᄂᆞᆫ지라 尙書ᄂᆞᆫ 漂津(표ᄌᆞ)의 오ᄅᆞ시고 눈을 ᄀᆞᆷ으니 ᄇᆞᆯ셔 皇城 밧긔 經河水의 왓ᄃᆞ라 尙書 大喜ᄒᆞ여 뭇ᄐᆡ ᄂᆞ리며 龍子의게 無數이 致謝ᄒᆞ고 城中의 드러오니(하, 72뒤-73앞)

위 인용문은 이선이 용자(龍子)의 도움을 받아 여러 선약을 구해서 황성으로 돌아오는 장면 부분의 서술이다. 그런데 밑줄 친 부분의 문장이 어색함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용자의 발화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술자의 서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12]

이상으로 서술 행문 차원에서 나카무라본의 오류를 사례 별로 몇 가지 제시했으나, 기실 이러한 오류는 각각 두세 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게 나타난다. 나카무라본은 전체적으로 매우 온전하고 정제된 서술 양상을 보여주는 이본으로서, 여타 완본에 비해 내용의 구비(具備) 및 서술 행문 차원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이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은 타본의 오류를 나카무라본이 증거하거나 확인해 주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도 인정된다.

> 부인니 보기를 마츠ᄆᆡ 통곡 왈 반드시 죽을이라 ᄒᆞ고 나와 그 글를 승상게 드리니 보시고 쟌잉히 넉여 쳑감ᄒᆞ믈 마지 안이ᄒᆞ더라 마츰 승상의 죡하 쟝원니 왓싸가 이 말를 듯고 왈 ᄂᆡ 올 졔 포진믈ᄀᆞ의 다다른즉 거동이 이러이러ᄒᆞᆫ 아희

---

11) 정문연a본에는 상기 '√' 부분에 "쳡니 무ᄌᆞᄒᆞ미 안니오라 샹셔 무ᄌᆞᄒᆞ시면 엇지ᄒᆞ시리오"(숙향전전집1, 403면)가 삽입되어 있다.

12) 이 부분이 타본에는 다음과 같이 오류 없이 서술되어 있다. "尙書ᄅᆞᆯ 請ᄒᆞ여 ᄇᆡ예 올니고 ᄐᆡ 눈을 暫間 ᄀᆞ무쇼셔 ᄒᆞ여ᄂᆞᆯ 尙書 눈을 ᄀᆞ무니 이윽고 ᄒᆞᆫ 고ᄃᆡ 다ᄃᆞ라 ᄂᆞ리쇼셔 ᄒᆞ여ᄂᆞᆯ 尙書 눈을 ᄯᅥ 보니 ᄇᆞᆯ셔 長安城 慶華란 물ᄀᆞ의 니ᄅᆞ더라"(심씨b본, 숙향전전집1, 164-165면), "ᄉᆞᆼ셔난 포쥬의 올나 즘간 눈을 감으쇼셔 ᄉᆞᆼ셔 크게 짓거 눈을 깜으니 발셔 황셩 경화강의 왓난지라"(이대본, 숙향전전집1, 220-221면), "샹셔다려 눈를 잠간 감으쇼셔 ᄒᆞ거ᄂᆞᆯ 샹셔 용션의 안ᄌᆞ 눈를 잠간 감고 안ᄌᆞ시니 발셔 황셩문 밧 계홰란 믈ᄀᆞ의 다다라ᄊᆡ라"(정문연a본, 숙향전전집1, 206면).

하눌게 빌며 울거ᄂᆞᆯ 보고 왓써니 일졍 그 아희로쇼이다(숙향전전집1, 396면)

위 인용문은 정문연a본에 서술된 부분인데, 장승상 부인이 숙향의 이별시를 보고 숙향이 죽었음을 짐작하면서도 종을 시켜 숙향을 찾아보게 하는 장면의 일부 내용이다. 위 인용문의 행문을 읽어보면, 분명한 오류라고는 볼 수 없으나 무언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승샹의 죡하 쟝원니 왓싸가 이 말를 듯고 왈” 부분에서 “이 말”이 가리키는 내용이 위의 행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인용문이 나카무라본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어, 정문연a본의 어색함과 나카무라본의 온전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夫人이 글을 보시고 淑香이 一定 죽도다 ᄒᆞ여 슬피 痛哭ᄒᆞ시다가 丞相ᄭᅴ 나와 ᄉᆞᆯ오되 四香은 제 罪로 天罰을 닙어 죽을시 올숩거니와 에엿븐 淑香조차 즉어ᄉᆞ오니 丞相은 妾을 위ᄒᆞ여 奴僕을 만히 보내오셔 淑香의 身體나 어더오라 ᄒᆞ쇼셔 丞相ᄃᆡ 夫人계셰 淑香 죽은 줄을 어이 아ᄅᆞ시ᄂᆞ니잇가 夫人이 울며 ᄉᆞᆯ오되 淑香이 나가며 피로 離別詩를 디어 窓前의 써시되 이리〃〃 ᄒᆞ엿더니다 丞相이 드ᄅᆞ시고 또ᄒᆞᆫ 悲愴히 녀기샤 눈믈을 흘니시고 奴僕을 보내고져 ᄒᆞᆯ제 마ᄌᆞᆷ 丞相의 족하 張元이란 션ᄇᆡ 왓더니 이 말을 듯고 엿ᄌᆞ오되 내 오올제 漂津믈 ᄀᆞ의 모양이 이리〃〃ᄒᆞᆫ 계집 아히 하ᄂᆞᆯᄭᅴ 울며 表拜ᄒᆞᄂᆞᆫ 양을 보고 왓숩더니 一定 그 아히로소이다(상, 35뒤-36앞)

다음은 타본의 누락을 증명해 주는 나카무라본의 내용이다.

또 ᄒᆞᆫ 나라의 가니 이ᄂᆞᆫ 張身國이라 이 ᄯᅡᆼ 사ᄅᆞᆷ은 킈ᄂᆞᆫ 十丈이나 ᄒᆞ고 모진 즘ᄉᆡᆼ과 믈거기로 生涯ᄒᆞᄃᆞ라 직흰 城隍은 畢星이란 별이러라 龍子 尙書ᄃᆞ려 니ᄅᆞ되 이 나라 사ᄅᆞᆷ이 모질고 사오나와 아모 거슬 보와도 잡어먹으려 ᄒᆞ오니 尙書ᄂᆞᆫ 蕨子를 믈ᄉᆡ의 다히지 마ᄅᆞ시고 ᄒᆡᆼ혀 이 나라 사ᄅᆞᆷ이 보면(고) 尙書를 잡으려 믈로 드러 오거든 이 符作을 더지쇼셔 自然 無事ᄒᆞ리이다 ᄒᆞ고 公文을 成貼ᄒᆞ라 드러가거ᄂᆞᆯ 尙書 혼자 蕨子의 안잣더니 믄득 그 ᄯᅡᆼ 사ᄅᆞᆷ이 尙書를 보고 잡아먹으려 ᄒᆞ고 소릭ᄒᆞ여 믈을 헤치고 드러오거ᄂᆞᆯ 尙書 大驚ᄒᆞ여 그 符作을 더지니 그 사ᄅᆞᆷ은 믈속의 즘기고 ᄐᆞᆫ 蕨子ᄂᆞᆫ 風浪의 블리여 大洋 中의 내ᄃᆞᄅᆞ니 尙書 龍子도 보지 못ᄒᆞ고 표ᄌᆞ를 것잡지 못ᄒᆞ여 悶忙ᄒᆞ여 ᄒᆞᄃᆞ니(하, 57앞뒤)

위 인용문은 이선이 선약을 구하기 위해 선계의 여러 나라를 경유하는 과

정에서 장신국이란 나라에 이르러 겪은 내용이 서술된 부분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심씨b본에는 누락되었다.[13]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심씨b본은 비록 일부 내용이 탈락된 이본이지만, 〈숙향전〉 내용의 고형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본이다. 그렇지만 심씨b본 역시 전사본으로서의 한계가 나타나는데, 위의 사례는 그 한계를 나카무라본이 증명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나카무라본 〈별숙향전〉은 서술 행문의 온전성이나 내용의 구비성(具備性) 측면에서 현전 이본 중 가장 선본(善本)에 해당하는 이본이다. 더구나 일본인 통사가 조선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필사한 것임을 고려하면, 내용의 변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나카무라본은 〈숙향전〉 작품론의 가장 적절한 이본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14]

2) 오카쿠라본의 서지 및 서술 표현

다음으로 오카쿠라본 〈숙향전〉을 살펴보겠다. 오카쿠라본은 일본 쯔쿠바(筑波) 대학 도서관 오카무라 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이다. 오카쿠라 요시사부로는 1891년부터 1893년까지 조선에서 관립 일어학교[日語學堂]의 교사를 역임한 바 있는데, 그때 조선어를 배우거나 가르치는 과정에서 조선어 작품이나 여러 조선 전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오카쿠라는 1939년에 자신의 장서 2,417점을 쯔쿠바 대학의 전신인 동경문리과대학에 기증하였는데, 그 기증품 중에 34종 110책의 조선시대 책이 있고[15], 〈숙향전〉도 그 중의 하나이다.[16]

오카쿠라본 〈숙향전〉은 2002년까지는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정병설

13) 정문연a본(숙향전전집1, 466면), 경판본(숙향전전집2, 117-118면) 등에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본래부터 있었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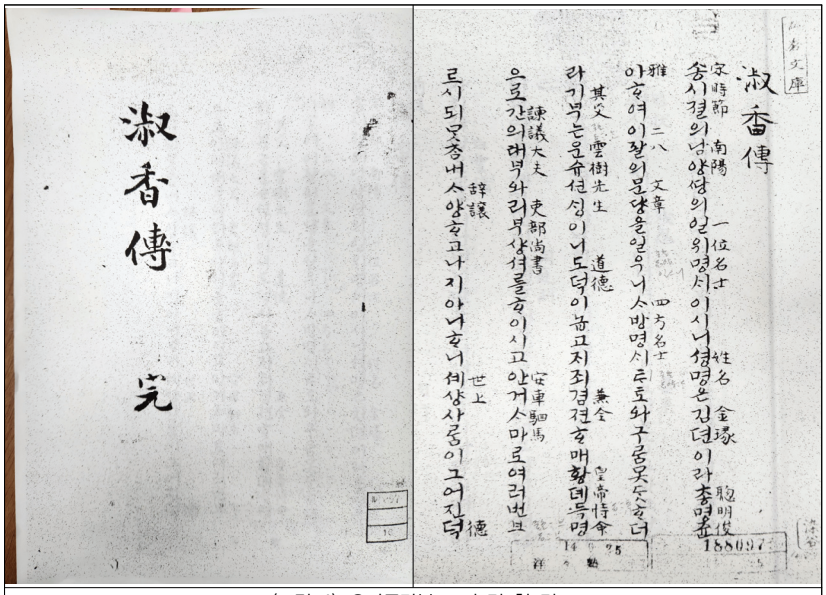
14) 서술 행문 및 내용의 측면에서 보이는 나카무라본의 온전성은 심씨a·b본, 정문연a본, 이대본, 경판본 등 여타 주요 이본과의 면밀한 비교를 통해야만 구체적으로 확인될 터인데,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15) 유춘동, 「일본 쓰쿠바대학[筑波大學]의 조선 관련 서적과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의 장서」, 『동양학』 69,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7, 8면.

16) 유춘동이 위의 논문에서 밝힌 〈숙향전〉은 방각본이다. 오카쿠라 장서 중에는 방각본 〈숙향전〉 외에 필사본 〈숙향전〉도 소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2003년 1월에 그 실물을 직접 접하고 다시 복사본을 입수하여 처음으로 그 특징을 소개하였다.[17] 정병설은 상기 글에서 오카쿠라본이 쯔쿠바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경위, 주요 서지 사항, 표기상의 오류와 내용상의 한계 등을 간략히 지적한 뒤, 어휘나 문장 표현을 기준으로 〈숙향전〉 텍스트가 일본인의 조선어 학습서로 매우 유용한 자료임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오카쿠라본의 이본적 성격에 대해서는 그 연구의 필요성만 제기하고 구체적인 연구는 진행하지 않았다.

실물을 직접 본 정병설은 오카쿠라본이 얇은 일본 종이에 필사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로 보아 오카쿠라본은 일본인이 필사한 것이 분명하다. 이점은 정병설도 지적한 바이지만, 행별 글자 수가 매 장마다 25자로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분량은 장당 6행, 행당 25자, 총 124장이다.[18] 국문의 행간에 한자가 군데군데 병기되어 있다. 표지에는 "淑香傳 完"으로 쓰여 있고 내제에는 "淑香傳"으로 쓰여 있다.



〈그림 4〉 오카쿠라본 표지 및 첫 면

17) 정병설, 「일본인의 한국어 교재 숙향전-쯔쿠바(筑波) 대학 소장본을 중심으로」, 『문헌과해석』 26, 문헌과해석사, 2004, 99-108면.

18) 필자는 2022년에 쯔쿠바대학으로부터 복사본을 직접 입수하여 보고 있다.

필사 문면을 살펴보면, 오자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이는 저본의 오류, 필사자의 낮은 조선어 구사 능력, 부주의 등이 겹친 결과로 보인다.[19] 오자 빈출뿐만 아니라, 문장을 중복 필사한 오류도 보인다.[20]

다음으로 오카쿠라본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오카쿠라본은 작품의 초반부터 이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대체로 타 이본과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선의 부모가 무자(無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장면부터 내용의 끝까지는 축약 및 생략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샹셔는 본ᄃᆡ 츙효忠孝 겸젼ᄒᆞ니 ᄒᆞᆫ 말도 ᄃᆡ답지 못ᄒᆞ고 엿ᄌᆞ오되 그런 줄은 아조 모르고 요ᄉᆞ이 션이 그 계집을 위ᄒᆞ여 ᄒᆞᆨ업學業을 젼폐全廢ᄒᆞ엿다 ᄒᆞ오ᄆᆡ 분忿ᄒᆞ믈 이긔지 못ᄒᆞ여 낙양 녕의게 긔별ᄒᆞ여 슉향을 죽이려 ᄒᆞ엿ᄉᆞᆸ더니 그리 ᄒᆞ옵시매 노하 보내게 긔별ᄒᆞ리이다 ᄒᆞ고 낙양 녕의게 긔별ᄒᆞ시되 슉향을 부ᄃᆡ 죽이려 ᄒᆞ엿더니 ᄆᆞᆺ누의님계셔 아르시고 황셩의 친힝親行ᄒᆞ야 말니시니 죽이든 아니ᄒᆞ고 그 근쳐의 잇지 말게 분부ᄒᆞ여 노흐라 ᄒᆞ시고 션은 경셩으로 드러오라 긔별ᄒᆞ시다 션이 즉시 경셩의 드러가 부친ᄭᅴ 뵈은ᄃᆡ 샹셰 즐왈叱曰 네 요ᄉᆞ이 힝실이 됴치 아니타 ᄒᆞ니 급뎨 못ᄒᆞᆫ 젼에는 집에 잇지 말고 태ᄒᆞᆨ의 잇스라 ᄒᆞ시니 션이 하직ᄒᆞ고 태ᄒᆞᆨ으로 가니라 이ᄯᅢ 낙양 새 원이 도임到任ᄒᆞ고 즉시 슉향을 불너 니르되 니샹셰 네를 죽이려 ᄒᆞ시다가 용셔容恕ᄒᆞ여 노흐라 ᄒᆞ시니 너는 이 근쳐의 사지 말고 멀니 가라 ᄒᆞ고(오카쿠라본, 110앞-111앞)

위 인용문은 이선의 고모가 이상서가 낙양 수령을 명하여 숙향을 죽이려 함을 알고 경성으로 올라가 이상서를 질책한 후에, 이상서가 취한 일련의 언행이 서술된 부분이다. 위 인용문에서 이상서는 숙향을 죽이려 한 이유를 말한 뒤, 다시 낙양 수령에게 명하여 숙향을 풀어주되 근처에 있지 말도록 명하고, 이선에게는 바로 경성에 올라오게 하여 태학으로 보내고 있다. 서술 행문을 읽어보면, “그런 줄은 아조 모르고”, “그리ᄒᆞ옵시매” 등의 어구에서

19) 정병설, 앞의 논문, 102면.

20) “승샹이 반겨 드르시고 즉시 장노壯奴 열아믄을 보내여 표진믈ᄉᆡᆼ의 가 ᄎᆞ자 ᄃᆞ려오라 ᄒᆞ시다 죵들이 명을 듯고 일시의 밧비 표진믈ᄉᆡᆼ의 가 ᄎᆞ자 ᄃᆞ려오라 ᄒᆞ시다 죵들이 명을 듯고 일시 一時의 밧비 표진믈ᄉᆡᆼ의 가 두로 ᄎᆞᆺ다가 못ᄒᆞ여 근쳬 촌민村民ᄃᆞ려 므르니 ᄇᆞᆯ셔 믈의 ᄲᅡ져 죽엇다 ᄒᆞ거ᄂᆞᆯ”(오카쿠라본, 51앞-51뒤). 밑줄 친 부분에 문장의 중복이 확인된다.

축약과 생략의 흔적이 발견되나, 전체 서술 문면에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실 위 인용문의 문면에는 많은 내용과 문장이 생략되었는데, 그 점을 나카무라본의 해당 문면을 통해 확인해 보자.

尙書ᄂᆞᆫ 본ᄃᆡ 忠孝 兼全ᄒᆞᆫ 사ᄅᆞᆷ이라 ᄒᆞᆫ 말도 對答디 못ᄒᆞ고 엿ᄌᆞ오되 누의님겨옵셔 主婚ᄒᆞ온 줄을 모로옵고 져적의 梁王이 求婚ᄒᆞ옵거ᄂᆞᆯ 許諾ᄒᆞ엿ᄉᆞᆸᄃᆞ니 요ᄉᆞ이 仙이 微賤ᄒᆞ온 계집의게 제 ᄆᆞᄋᆞᆷ으로 댱가 드러 沈惑ᄒᆞ여 學業을 全廢ᄒᆞ엿다 ᄒᆞ오매 그 ᄭᅳᆺᄒᆞ오믈 ᄎᆞᆷ디 못ᄒᆞ와 洛陽令의개 奇別ᄒᆞ여 그 계집을 주기라 ᄒᆞ엿ᄉᆞᆸ더니이다 夫人 曰 夫妻 ᄉᆞ이ᄂᆞᆫ 天定이오 愛情은 妻妾 업ᄂᆞ니 萬乘天子도 正宮을 廢ᄒᆞ고 後宮으로 終千年ᄒᆞ엿거든 비록 尙書 夫妻ᄃᆞ려 議論티 못ᄒᆞ여시나 仙이 제 ᄆᆞᄋᆞᆷ으로 放恣이 娶ᄒᆞᆫ 일이 아니오 내 主婚ᄒᆞ여 내 집의셔 禮을 ᄀᆞᆺ초와 어더시니 仙의 罪도 아니요 娘子의 罪도 아니라 仙이 及第ᄒᆞ여 벼ᄉᆞᆯᄒᆞ거든 둘재 며ᄂᆞ리 어들 ᄌᆡᄂᆞᆫ 尙書 主婚ᄒᆞ면 됴흘 거시니 내 어든 며ᄂᆞ리ᄂᆞᆫ 罪업ᄉᆞ니 急히 奇別ᄒᆞ여 노흐라 ᄒᆞ쇼셔 尙書 敢히 거ᄉᆞ디 못ᄒᆞ여 그리 ᄒᆞ리이다 ᄒᆞ고 洛陽令의게 奇別ᄒᆞ되 그 계집을 브ᄃᆡ 주기려 ᄒᆞ엿ᄃᆞ니 ᄆᆞᆺ 同生님계셔 아ᄅᆞ시고 皇城의 親行ᄒᆞ샤 責ᄒᆞ시며 말리시니 주기든 말고 그 近處의ᄂᆞᆫ 잇디 못ᄒᆞ게 分付ᄒᆞ여 노흐라 ᄒᆞ시다 呂皇后ᄂᆞᆫ 叔夫人의 싀누의님이시라 京城의 왓다 말ᄉᆞᆷ을 드ᄅᆞ시고 夫人을 請ᄒᆞ여 宮中의 드려와 여러날 請留ᄒᆞ시니 夫人이 집으로 못 오시매 娘子을 주기디 말고 노흐라 ᄒᆞᆫ 奇別만 李仙의게 傳ᄒᆞ시니 仙이 夫人의 片紙을 보고 크개 깃거ᄒᆞᄃᆞ라 尙書 ᄉᆡᆼ각ᄒᆞ시되 仙을 게 두면 그 계집을 마디 알닐가 ᄒᆞ샤 下人을 보내여 仙을 ᄃᆞ려오라 ᄒᆞ다 李郎이 娘子을 다시 못 보고 京城으로 가게 되니 슬픈 ᄆᆞᄋᆞᆷ을 이긔디 못ᄒᆞ여 母夫人ᄭᅴ 下直ᄒᆞ며 눈믈을 흘리거ᄂᆞᆯ 夫人이 니ᄅᆞ시되 네 人物과 才操 ᄲᅡ혀나매 父母ᄂᆞᆫ 너과 ᄀᆞᆺ튼 配匹을 엇고져 ᄒᆞᄃᆞ니 네 ᄆᆞᄋᆞᆷ으로 放恣이 微賤ᄒᆞᆫ 계집의게 쟝가 드러두고 이ᄌᆡ 父親이 브ᄅᆞ시ᄂᆞᆫᄃᆡ 그 계집의게 愛情을 두어 ᄯᅥ나기를 슬히여 우ᄂᆞᆫ다 仙이 그ᄌᆡ야 淑香 어든 前後 曲折을 一〃히 엿ᄌᆞᆸ고 ᄯᅩ 알외되 이ᄌᆡᄂᆞᆫ 父親겨오셔 주기디 말고 노흐라 ᄒᆞ엿ᄉᆞ오나 제 依托ᄒᆞ올 ᄭᅩ디 업ᄉᆞ오니 母親겨오셔ᄂᆞᆫ 子息의 情을 生覺ᄒᆞ오셔 ᄃᆞ려다가 近處의 두옵시고 糧食이나 주옵시믈 ᄇᆞ라ᄂᆡ이다 夫人이 仙의 哀怨ᄒᆞᆫ 말ᄉᆞᆷ을 듯ᄌᆞ오시고 눈믈을 디시며 니ᄅᆞ시되 眞實로 네 말 ᄀᆞᆺ틀진대 하ᄂᆞᆯ이 定ᄒᆞ신 配匹이니 任意로 못ᄒᆞᆯ 일이예니와 다만 네 父親의 ᄯᅳᆺ을 아디 못ᄒᆞ노라 用慮 말고 됴히 가셔 及第나 쉬이 ᄒᆞ여라 벼ᄉᆞᆯᄒᆞᆫ 後면 네 ᄆᆞᄋᆞᆷ으로 ᄒᆞ리라 ᄒᆞ시ᄃᆞ라 李郎이 할미나 보고 가고져 ᄒᆞ되 尙書의 分付로 下人이 알외되 아모 ᄃᆡ도 보내디 말고 바로 京城으로 ᄃᆞ려오라 ᄒᆞ시더이다 ᄒᆞ매 父親의 令을 敢히 어긔롭디 못ᄒᆞ여 할미개 片紙만 ᄒᆞ여 보내고 京城의 드러가 父親ᄭᅴ 뵈오니 尙書 叱曰 婚姻은 人倫大事라 父母의 命을

바다 宗族을 請ᄒᆞ고 禮을 ᄀᆞᆺ초와 어딘 家門의 쟝가 들 거시여ᄂᆞᆯ 父母을 소겨 微賤ᄒᆞᆫ 계집의게 쟝가 드러시니 너과 그 계집을 ᄒᆞᆷ씌 주기려 ᄒᆞ엿ᄃᆞ니 누의님 ᄂᆞᄌᆞᆯ 보와 아직 罪를 赦ᄒᆞᄂᆞ니 及第 못ᄒᆞᆫ 前은 내 눈의 뵈디 말고 太學의 가 이시라 ᄒᆞ시니 仙이 울며 下直고 大學으로 가니라 尙書 집의 도라와 夫人을 보시고 叔夫人 말ᄉᆞᆷ을 ᄒᆞ(니)ᄅᆞ시며 淑香 못 주긴 일을 恨ᄒᆞ시ᄃᆞ라 잇ᄯᅴ 洛陽 새 員이 到任ᄒᆞ고 卽時 淑香을 올러 니ᄅᆞ되 李尙書 너를 주기려 ᄒᆞ시다가 赦ᄒᆞ여 노흐라 ᄒᆞ여시니 너ᄂᆞᆫ 이 近處의 사디 말고 멀리 避ᄒᆞ여 가 살나 ᄒᆞ고(나카무라본, 하, 2앞-4뒤)

위 나카무라본과 오카쿠라본의 행문을 비교해 보면, 나카무라본의 밑줄 친 부분, 즉 이선이 숙향에게 혹하여 학업을 전폐했다는 이상서의 말에 대해 이선의 고모 여부인이 이선과 숙향은 천정연분이요 이선이 급제하여 벼슬하면 두 부인을 둘 수 있으니 그때 둘째 부인을 얻을 때에는 상서가 주혼하라는 내용, 이선이 모친에게 숙향을 얻은 곡절을 말하고 숙향을 부탁하는 내용, 이선이 마고할미에게 편지를 전하고 경성에 올라와 부친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내용 등이 오카쿠라본에서 모두 생략되거나 축약되었음을 알 수 있다.[21]

그 외에, 삽살개가 숙향을 마고할미의 분묘로 인도하는 과정, 이선의 유부(乳父)가 숙향을 만나고 돌아가는 장면, 이선의 모친이 유부의 말을 듣고 시녀를 숙향에게 보내는 장면, 숙향이 이상서 집으로 가서 봉유정에 머무는 과정 등에도, 오카쿠라본에서 축약 및 생략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오카쿠라본은 내용의 후반부로 가면서 축약 및 생략을 지향하다가 작품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이젹의 태ᄉᆞ원太史員이 황샹ᄭᅴ 주왈 요ᄉᆞ이 년連ᄒᆞ여 태을셩이 태ᄒᆞᆨ의 빗ᄎᆡ엿고 모든 별이 좌우의 버렷ᄉᆞ오니 일뎡 태ᄒᆞᆨ의 어진 사ᄅᆞᆷ이 잇ᄂᆞ이다 황뎨 즉시 젼교傳敎ᄒᆞ샤 댱안長安 션ᄇᆡ를 모와 알셩謁聖ᄒᆞ시니 니부샹셔 니졍의 아ᄃᆞᆯ 션이 장원壯元의 ᄲᅥᆺ이니 황상이 아ᄅᆞᆷ다히 여기샤 금문직니金門直吏에 한림ᄒᆞᆨᄉᆞ翰林學士를 겸ᄒᆞ여 ᄒᆞ이시니 니션이 샤은슉ᄇᆡᄒᆞ고 집으로 도라올ᄉᆡ 일노一路의

21) 심씨b본, 이대본, 정문연a본 등에도 위 나카무라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서술이 나타난다.

션문先聞 놋코 오니 각읍各邑 슈령守令이 경ᄃᆡ敬待 아니리 업고 보ᄂᆞᆫ 사ᄅᆞᆷ이 칭찬 아니리 업도라 도문 후에 샹셰 ᄃᆡ의셔 삼일 三日 경연慶宴ᄒᆞ고 녀복야 ᄃᆡ의셔 삼일 경연ᄒᆞ니 원근 종족이며 닌리 사ᄅᆞᆷ들이 칭찬 아니ᄒᆞ리 업고 일개 영화로 지내시더니 그후 니션이 여러번 나라의 공이 잇셔 드듸여 초왕을 봉ᄒᆞ시ᄆᆡ 더옥 츙셩을 다ᄒᆞ여 셤기더니 초왕이 부텨 시년이 칠십의 이르러 칠월 망일의 도로 승텬ᄒᆞ시다 황뎨 드르시고 긔특이 너기샤 ᄉᆞ관을 명ᄒᆞ샤 니션의 ᄌᆞ손ᄃᆞ려 ᄉᆞ젹을 무러 긔록ᄒᆞ여 후셰의 젼ᄒᆞ라 ᄒᆞ시다(오카쿠라본, 123앞-124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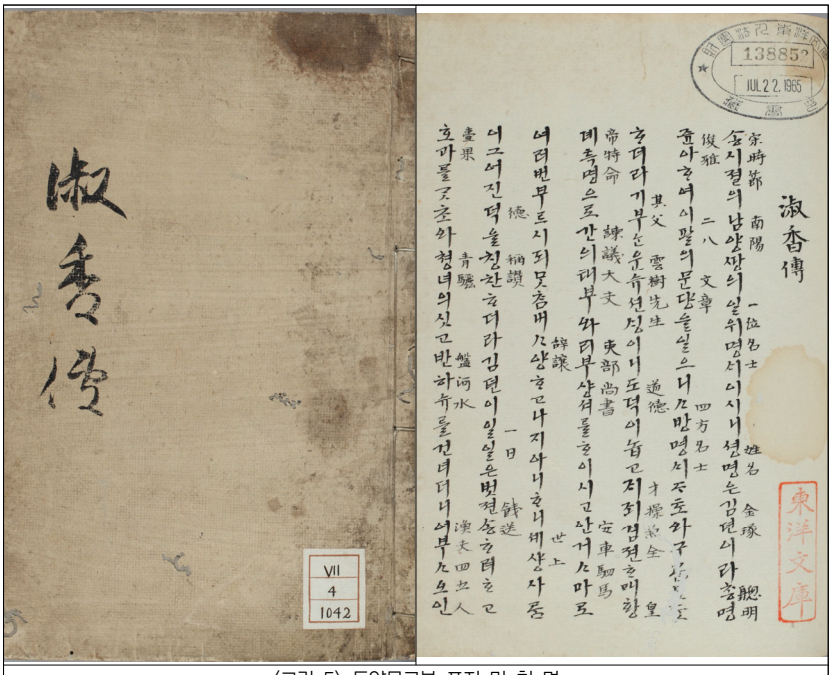
위 인용문은 오카쿠라본 〈숙향전〉의 마지막 부분이다. 태학에서 공부하던 이선이 알성과에 장원급제하자 온 가문이 잔치를 열고, 이선은 여러 번 공을 세워 초왕이 되었으며, 초왕 부부가 70세에 승천하니, 황제는 사관에게 명하여 이선의 행적을 기록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숙향전〉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는다. 이선의 급제와 숙향과의 재회 이후에도, 이선의 형주자사 행적, 숙향의 보은 여정과 장승상 부부 및 부모와의 재회, 양왕의 혼인 재촉과 이선의 거절로 인한 양왕과 이선의 갈등, 이선과의 혼인을 고집하는 매향의 태도, 황태후의 발병, 이선의 구약 여정, 매향과 이선의 혼인, 어린 시절 숙향을 구해준 늙은 병사에 대한 숙향의 보은, 김전 부부와 이선 부부의 순차적 승천 등 많은 내용이 더 전개되는데, 오카쿠라본에는 그들 모두가 생략된 것이다.

이처럼 오카쿠라본은 작품 후반부 내용의 상당 부분이 생략된 사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명은 "淑香傳 完"이라고 했는데, 많은 생략을 했으면서도 이렇게 제명을 한 것은 내용의 생략이 일정한 의도 아래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나 생략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추정을 해본다면, 특히 이선의 구약 여정 장면이 통째로 생략된 것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의 언어 표현이나 문장 서술이 조선어를 학습하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오카쿠라본은 조선어 학습을 위한 절략본(節略本)으로 만들어진 텍스트로 볼 수 있겠다.

3) 동양문고본의 서지 및 서술 표현

다음으로 동양문고본 〈숙향전〉을 살펴보겠다. 동양문고본 〈숙향전〉은 필사본으로서, 현재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다.[22] 표제는 "淑香傳"이고 내제 역시 "淑香傳"이다. 총 93장본이며, 국문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으나, 모든 한자어에 한자를 병기한 것이 아니어서 한자 병기의 빈도는 그리 높지 않다. 장당 8행이며 행당 글자 수는 22자, 27자, 29자 등도 보이나 대부분은 24자, 25자로 필사되어 있다.



〈그림 5〉 동양문고본 표지 및 첫 면

일본 동양문고에서 1939년에 발간한 『東洋文庫 朝鮮本 分類 目錄』[23]을 살

22)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사이트(http://kostma.korea.ac.kr/)에 원문 이미지가 탑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활용한다.
23) 동양문고 편, 『東洋文庫 朝鮮本 分類 目錄』, 일본: 동양문고, 1939.

펴보니, 이 목록집에는 본 〈숙향전〉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아마도 1939년 이후에 기증되거나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데, 작품 첫 면 상단의 동양문고 인장에 '1965.7.22.'이란 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략 이 무렵에 동양문고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실물을 보지 못해 지질은 확인할 수 없으나, 글씨를 또박또박 반듯하게 썼고 글자 수도 대체로 균일하며 행간에 한자를 병기하면서 읽은 흔적이 보여, 오카쿠라본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일본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필사 문면을 살펴보면, 동양문고본 역시 오자와 글자 누락 등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 옷밥을 고리지 아니ᄒᆞ니(6뒤): '그'의 오자.
> 내 귀운이 진ᄒᆞ엿스니(7뒤): '기'의 오자.
> 의복을 다 타오고(44앞): '태'의 오자.
> 며ᄂᆞ리를 극딕ᄒᆞ되(54앞): 'ᄐᆡᆨ'의 오자.
> ᄒᆞᆫ 다리 ᄲᅮᆯ의 타 ᄲᅥ졋고(62앞): '불'의 오자.

이상의 사례들은 오자가 나타난 경우인데, 이런 오류가 많은 곳에서 발견된다.

> 샨 듕의 깁피_초고 밤의 ᄀᆞ만히 ᄂᆞ려와(11앞): '감' 누락.
> 아인 바도 업스되 ᄌᆞ연_ᄒᆞ여 안잣ᄂᆞ이다(42앞): '곤' 누락.
> 그ᄃᆡ는 긔_지 말고 이 그림 츌쳐를 ᄌᆞ셔히 닐으라 됴쟝이 감히_이지 못ᄒᆞ여 니르되(57앞): 각각 '이', '긔' 누락.
> 아니 가오리잇가마는_느저가ᄆᆡ(85뒤): 'ᄯᅴ' 누락.

이상의 사례들은 글자가 누락된 경우인데, 이런 오류 역시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한 "쇼비小婢 ᄉᆞᆯ아갈셰 업ᄉᆞ와 외어 니르되 어이 부인ᄭᅴ 하직ᄒᆞ고 가ᄂᆞᆫ다 ᄒᆞ오니 나를 구박ᄒᆞ여 내치는ᄃᆡ 하직ᄒᆞ여 무엇ᄒᆞ리"(34뒤-35앞)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누락으로 인한 문맥의 오류가 보이는 경우도 있다.[24]

24) 오카쿠라본에는 오류가 없는바, 해당 문면은 다음과 같다. "쇼비小婢 ᄉᆞᆯ아갈셰 업ᄉᆞ와 외어 니

슉향의 방의 드러오니 슉향이 마리 싸 졋거ᄂᆞᆯ(심씨a,b본/나카무라본)
슉향의 방의 드로오니 슉향이 머리를 싸고 누엇거ᄂᆞᆯ(동양문고본, 21뒤)

승샹이 셩 止息ᄒᆞᆫ 後의(심씨a,b본)
승샹이 셩 새진 후의(나카무라본)
승샹이 셩 써지신 후에(동양문고본, 22뒤)

또한 위의 사례와 같이 서술 표현이 타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바뀐 모습도 동양문고본의 특징이다.

다음으로 동양문고본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자의 빈도 차이, 일부 문맥 오류의 유무 등을 제외하고, 내용 구성 및 서술 행문만을 보면 동양문고본은 오카쿠라본과 같은 이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정확히 동일한 것이다. 앞서 필자는 오카쿠라본의 내용 중 이선과 숙향의 혼인과 관련된 내용, 작품 말미의 내용 등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오카쿠라본이 이선의 등장 이후부터 축약 및 생략이 많이 나타나는 이본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동양문고본 역시 이와 정확히 동일하다.[25] 요컨대, 내용과 서술 행문만을 보면, 동양문고본은 오카쿠라본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르되 어이 부인의 하직도 아니ᄒᆞ고 가ᄂᆞᆫ다 ᄒᆞ오니 나를 구박ᄒᆞ여 내치는ᄃᆡ 하직ᄒᆞ여 무엇ᄒᆞ리"(오카쿠라본, 46앞).

25) 작품 말미 부분만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이적의 태ᄉᆞ원太師員이 황셩의 주왈 요ᄉᆞ이 년連ᄒᆞ여 태을셩이 태ᄒᆞᆨ의 빗최엿고 모든 별이 좌우에 버렷ᄉᆞ오니 일졍 태ᄒᆞᆨ의 어진 사ᄅᆞᆷ이 잇ᄂᆞ이다 황뎨 즉시 젼교傳敎ᄒᆞ샤 댱안長安 션ᄇᆡ를 모와 알셩謁聖ᄒᆞ시니 니부샹셔 니졍의 아ᄃᆞᆯ 션이 장원壯元에 ᄲᅢ이니 황샹이 아ᄅᆞᆷ다이 여기샤 금문직니金門直吏에 한림ᄒᆞᆨᄉᆞ翰林學士를 졈ᄒᆞ여 ᄒᆞ이시니 니션이 샤은슉ᄇᆡᆨᄒᆞ고 집으로 도라올ᄉᆡ 일노一路의 션문先聞 놋코 오니 각읍各邑 슈령守令이 경ᄃᆡ敬待 아니리 업고 보ᄂᆞᆫ 사ᄅᆞᆷ이 칭찬 아니리 업더리 도문到門 후에 샹셰 ᄃᆡ의셔 삼일 三日 경연慶宴ᄒᆞ고 녀복야 부인 ᄃᆡ의셔 삼일 경연ᄒᆞ니 원근遠近 종족宗族이며 닌리隣里 사ᄅᆞᆷ들이 칭찬 아니ᄒᆞ리 업고 일개一家 영화로 지내시더니 그후 니션이 여러번 나라의 공이 잇서 드듸여 초왕楚王을 봉ᄒᆞ시ᄆᆡ 더욱 즁셩을 다ᄒᆞ여 셤기더니 초왕 부쳬 시년이 칠십의 이르러 칠월 망일의 도로 승텬陞天ᄒᆞ시다 황뎨 드르시고 긔특이 너기샤 ᄉᆞ관史官을 명ᄒᆞ샤 니션의 ᄌᆞ손ᄃᆞ려 ᄉᆞ젹事跡을 무러 긔록ᄒᆞ여 후셰의 젼ᄒᆞ라 ᄒᆞ시다"(동양문고본, 92앞-92뒤). 이 내용을 오카쿠라본의 해당 부분과 비교해 보면 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3. 나카무라본, 오카쿠라본, 동양문고본의 관련성

이 장에서는 세 이본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먼저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宋時節의 南陽 ᄯᅡ의 一位 名士 이시니 姓名은 金琢이라 聰明俊雅ᄒᆞ여 二八의 文章을 일으니 四方 名士 ᄃᆞ토와 구ᄅᆞᆷ 못ᄃᆞᆺ ᄒᆞ더라 其父ᄂᆞᆫ 雲樹先生이니 道德이 놉고 ᄌᆡ죄 兼全ᄒᆞ매 皇帝 特命으로 諫議大夫와 吏部尙書를 ᄒᆞ이시고 安車駟馬로 여러번 브ᄅᆞ시되 ᄆᆞᆺᄎᆞᆷ내 辭讓ᄒᆞ고 나디 아니ᄒᆞ니 世上 사ᄅᆞᆷ이 그 어딘 德을 稱讚ᄒᆞ더라 (중략) 金琢이 그 거복을 보니 눈믈을 흘리며 죽기를 셜워 ᄒᆞᄂᆞᆫ 形狀을 뵈거ᄂᆞᆯ 殘忍히 녀겨 가져가ᄂᆞᆫ 壺果를 주고 밧고와 믈의 노흐니 그 거복이 날호여 드러가며 金琢을 ᄌᆞ로 도라보고 가ᄃᆞ라 이듬ᄒᆡ예 金琢이 洞庭湖의 가 벗 보고 도라오더니 잇ᄯᅴ 長霖히라(나카무라본, 상, 1뒤-2앞)

송시졀宋時節의 남양南陽 ᄯᅡ의 일위一位 명ᄉᆡ名士 이시니 셩명姓名은 김뎐金琢이라 총명쥰아聰明俊雅ᄒᆞ여 이팔二八의 문댱文章을 일우니 ᄉᆞ방四方 명ᄉᆡ名士 ᄃᆞ토와 구ᄅᆞᆷ 못ᄃᆞᆺ ᄒᆞ더라 기부其父는 운슈션ᄉᆡᆼ雲樹先生이니 도덕道德이 놉고 ᄌᆡ죄 겸젼兼全ᄒᆞ매 황뎨皇帝 득명特命으로 간의태부諫議大夫와 리부샹셔吏部尙書를 ᄒᆞ이시고 안거ᄉᆞ마安車駟馬로 여러번 브르시되 ᄆᆞᆺᄎᆞᆷ내 ᄉᆞ양辭讓ᄒᆞ고 나지 아니ᄒᆞ니 셰샹世上 사ᄅᆞᆷ이 그 어진 덕德을 칭찬稱讚ᄒᆞ더라 (중략) 김뎐이 그 거복을 보니 눈믈을 흘니며 죽기를 셜워ᄒᆞᄂᆞᆫ 형상形狀을 뵈거ᄂᆞᆯ 잔잉殘忍이 너겨 가져가는 호과壺果를 주고 밧고와 물의 노흐니 그 거복이 날회여 드러가며 김뎐을 자로 도라보고 가더라 이틈ᄒᆡ예 김뎐이 동졍호洞庭湖의 가 벗보고 도라오더니 이ᄯᅢ 댱마히라(오카쿠라본, 1뒤-2뒤)

송시졀宋時節의 남양南陽 ᄯᅡ의 일위一位 명ᄉᆡ名士 이시니 셩명姓名은 김뎐金琢이라 총명쥰아聰明俊雅ᄒᆞ여 이팔二八의 문댱文章을 일으니 ᄉᆞ방四方 명ᄉᆡ名士 ᄃᆞ토와 구ᄅᆞᆷ 못ᄃᆞᆺ ᄒᆞ더라 기부其父ᄂᆞᆫ 운슈션ᄉᆡᆼ雲樹先生이니 도덕道德이 놉고 ᄌᆡ죄才操 겸젼兼全ᄒᆞ매 황뎨皇帝 특명特命으로 간의태부諫議大夫와 리부샹셔吏部尙書를 ᄒᆞ이시고 안거ᄉᆞ마安車駟馬로 여러번 부르시되 ᄆᆞᆺᄎᆞᆷ내 ᄉᆞ양辭讓ᄒᆞ고 나지 아니ᄒᆞ니 셰샹世上 사ᄅᆞᆷ이 그 어진 덕德을 칭찬稱讚ᄒᆞ더라 (중략) 김뎐이 그 거복을 보니 눈믈을 흘니며 죽기를 셜워ᄒᆞᄂᆞᆫ 형상形狀을 뵈거ᄂᆞᆯ 잔잉殘忍히 너겨 가져가는 호과壺果를 주고 밧고라 물의 노흐니 그 거복이 날회여 드러가며 김뎐을 자로 도라보고 가더라 이듬ᄒᆡ예 김뎐이 동졍호洞庭湖의 가 벗보고 도라오더니 이ᄯᅢ 댱마히라(동양문고본, 1뒤-2뒤)

앞 인용문은 〈숙향전〉의 서두 내용으로서, 나카무라본은 국한문 혼용이고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은 한자 병기본이라는 점, 일부 표기에 차이가 있는 점 외에는 세 이본의 서술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 나카무라본은 〈숙향전〉의 타 이본 중에서 심씨a,b본과 가장 유사하다. 따라서 나카무라본, 오카쿠라본, 동양문고본의 서술 내용을 심씨a,b본과 비교해 보면, 나카무라본 등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상기 서두 장면이 심씨a본에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 녜 宋時節의 南陽 짜의셔 사ᄂᆞᆫ 金典이란 사ᄅᆞᆷ이 이시되 二八의 文章의 글을 일으니 일홈난 션비들이 ᄃᆞᆺ돗와 못ᄃᆞᆺ더라 그 父親은 雲水先生이라 才德이 兼全ᄒᆞ니 皇帝 諫議太夫와 吏部尙書를 ᄒᆞ이시되 終時 辭讓ᄒᆞ고 밧지 아니ᄒᆞ고 山中의셔 죽으니 집이 凄凉ᄒᆞ더라 (중략) 金典이 그 거복을 보니 논믈을 흘니며 죽기를 셜워ᄒᆞᄂᆞᆫ 形狀이여ᄂᆞᆯ 殘忍히 너겨 그 가져가ᄂᆞᆫ 壺果를 주고 밧고와 믈의 노흐니 그 거복이 날회여 드러가며 金典을 向ᄒᆞ여 ᄌᆞ로 도라보고 가더라 이듬히예 金典이 洞庭湖의 가 벗 보고 도라오더니 이□ 장마히 졋ᄂᆞᆫ지라(심씨a본, 숙향전전집 1, 29면)[26]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서술 행문이 나카무라본 등과 다소 다르고, 인명 표기도 나카무라본 등은 金琢, 雲樹先生이나 심씨a본은 金典, 雲水先生으로 서로 차이가 있다. 나중에 김전은 거북으로부터 얻은 구슬을 빙물로 삼아 영천 땅에 사는 '장회'의 사위가 되는데, '장회'란 인명 표기도 나카무라본 등은 '張檜'이나 심씨a,b본은 모두 '張會'로 되어 있다.[27] 이렇듯 나카무라본, 오카쿠라본, 동양문고본의 친연성이 확연하다.

> 尙書계오셔 나를 주겨 업시코져 ᄒᆞᄂᆞᆫᄃᆡ 그ᄃᆡ의 집의 가면 그ᄃᆡ 罪를 니블 거시니 그 形狀을 어이 보리오 乳父 曰 娘子의 말ᄉᆞᆷ이 至極 맛당ᄒᆞ오니(나카무라본, 하, 12뒤)

---

26) 심씨b본은 이 부분 행문에 판독 불능인 글자가 많아 심씨a본의 것을 인용했다.

27) "穎川 짜히 張會란 사ᄅᆞᆷ이 功名의 ᄯᅳᆺ이 업서"(심씨a본, 숙향전전집1, 30면/심씨b본, 숙향전전집 1, 58면).

샹셰계오셔 나를 죽여 업시ᄒᆞ려 ᄒᆞ시는ᄃᆡ 그ᄃᆡ의 집의 가면 그ᄃᆡ 죄를 닙을 거시니 그 형상을 어이 보리오 유뷔왈 낭ᄌᆞ의 말슴이 지극 맛당ᄒᆞ오니(오카쿠라본, 121앞)

샹셔계오셔 나를 죽여 업시ᄒᆞ려 ᄒᆞ시는ᄃᆡ 그ᄃᆡ의 집의 가면 그ᄃᆡ 죄를 닙을 거시니 그 형상을 어이 보리오 유뷔왈 낭ᄌᆞ의 말슴이 지극 맛단ᄒᆞ오니(동양문고본, 90앞뒤)

尙書계옵셔 날을 업시고져 ᄒᆞ시ᄂᆞᆫᄃᆡ 그ᄃᆡ의 집의 가면 내게 도라오ᄂᆞᆫ 患은 내 죄니 죽어 앗갑지 아니ᄒᆞ나 乳父ᄂᆞᆫ 날을 위ᄒᆞ여 그ᄃᆡ 집의 ᄃᆞ려왓다 萬一 아ᄅᆞ시면 一定 그ᄃᆡ 죄 니블 거시니 其 形狀을 어ᄂᆡ 面目으로 보고 이실 거시라 가리요 나ᄂᆞᆫ 춤아 못갈노라 乳父 曰 娘子의 말ᄉᆞᆷ이 至極 맛당ᄒᆞ여이다(심씨b본, 숙향전전집1, 76면)[28]

위 인용문은 숙향이 마고할미의 분묘 근처에서 울고 있을 때, 마침 완월하던 이상서 부부가 울음소리를 듣고 그 근원을 알기 위해 이선의 유부를 소리 나는 곳으로 보낸 직후의 장면으로서, 달려간 유부가 울고 있던 여인이 이선의 배필인 숙향임을 알고 우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을 때, 숙향이 그 부당함을 말하는 내용의 일부이다. 위 인용문을 비교해 보면, 심씨b본과 달리 나카무라본, 오카쿠라본, 동양문고본의 일치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眞君은 玉帝 香眼前의 ᄒᆞᆫ 時도 ᄯᅥ나디 못ᄒᆞᄂᆞᆫ 벼ᄉᆞᆯ의 계실 ᄲᅮᆫ 아녀 玉帝 極히 ᄉᆞ랑ᄒᆞ시매(나카무라본, 상, 29뒤)

진군은 옥뎨 향안젼香眼前의 ᄒᆞᆫ 시時도 ᄯᅥ나지 못ᄒᆞᄂᆞᆫ 벼ᄉᆞᆯ의 계실ᄲᅮᆫ 아녀 옥뎨 극히 ᄉᆞ랑ᄒᆞ시매(오카쿠라본, 43앞)

진군은 옥뎨 향안젼香眼前의 ᄒᆞᆫ 시도 ᄯᅥ나지 못ᄒᆞᄂᆞᆫ 벼ᄉᆞᆯ의 계실ᄲᅮᆫ 아녀 옥뎨 극히 ᄉᆞ랑ᄒᆞ시매(동양문고본, 32뒤)

眞君은 玉帝 香案前의 一時 ᄯᅥ나지 못ᄒᆞᄂᆞᆫ 벼ᄉᆞᆯ로 玉帝 極키 ᄉᆞ랑ᄒᆞ시매(심씨a본, 숙향전전집1, 46면)[29]

28) 심씨a본은 이 부분이 낙장되어 확인할 수 없다.

앞 인용문은 숙향이 사향의 모함을 받아 장승상 댁에서 나온 뒤 표진강에 투신하였을 때, 숙향이 자신을 구해준 선녀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의 일부로서, 선녀가 숙향의 내두사를 말하는 과정에서 태을진군의 정체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다. 위 인용문의 줄친 부분을 보면, 나카무라본, 오카쿠라본, 동양문고본은 일치하나, 심씨a본은 행문이 다소 다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어휘 차원에서도 나카무라본, 오카쿠라본, 동양문고본의 친연성이 확인됨은 물론이다.

수운愁雲이 막〃漠〃ᄒᆞ고(나카무라본, 상, 8앞)
수운愁雲이 막〃漠〃ᄒᆞ고(오카쿠라본, 11뒤)
수운愁雲이 막〃漠〃ᄒᆞ고(동양문고본, 9뒤)
愁雲이 茫茫ᄒᆞ고(심씨a본, 숙향전전집1, 33면)

장도粧刀ᄂᆞᆫ 제게 쇽屬디 아닌 거시니(나카무라본, 상, 19앞)
장도는 제게 쇽屬지 아닌 거시니(오카쿠라본, 27뒤)
장도는 제게 쇽屬지 아닌 거시니(동양문고본, 21앞)
粧刀ᄂᆞᆫ 제게 當치 아닌 거시니(심씨a본, 숙향전전집1, 40면)[30]

쳡妾의 ᄇᆡ를 칼노 짜 네 길거리예 ᄃᆞ라두오시면(나카무라본, 상, 21뒤)
쳡의 ᄇᆡ를 칼노 짜 네 길거리예 다라두오시면(오카쿠라본, 30뒤)
쳡의 ᄇᆡ를 칼노 짜 네 길거리예 다라두오시면(동양문고본, 23뒤)
妾의 ᄇᆡᄅᆞᆯ 칼로 짜여 네 길거리예 다라두어시면(심씨a본, 숙향전전집1, 41면)[31]

황양黃壤의 가와 부모父母를 ᄎᆞ자 보옵게 ᄒᆞ쇼셔(나카무라본, 상, 25뒤)
황양黃壤의 가와 부모를 ᄎᆞ차 보옵게 ᄒᆞ쇼셔(오카쿠라본, 36뒤-37앞)
황양黃壤의 가와 부모를 ᄎᆞ자 보옵게 ᄒᆞ쇼셔(동양문고본, 28앞)
黃泉의 가와 父母를 ᄎᆞ자 보옵게 ᄒᆞ쇼셔(심씨a본, 숙향전전집1, 44면)[32]

이상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나카무라본, 오카쿠라본, 동양문고본은 상호

29) 심씨b본은 이 부분이 낙장되어 확인할 수 없다.
30) 심씨b본도 이와 정확히 동일하다.
31) 심씨b본에는 '짜여'가 'ᄶᅥ여'로 되어 있다.
32) 심씨b본은 이 부분이 낙장되어 확인할 수 없다.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나카무라본 등의 이러한 친연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먼저 이 세 이본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전제 아래 상호 관계를 살펴보겠다. 이 전제에서 나카무라본이 오카쿠라본 혹은 동양문고본을 대본으로 하여 필사될 수는 없다. 내용상 나카무라본은 완본이지만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은 축약과 생략을 바탕으로 한 절략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이 나카무라본을 대본으로 필사하면서 축약과 생략을 했다는 가능성만 있겠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앞서 세 이본의 친연성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숙향전〉 서두 내용의 일부를 인용한 바 있다. 해당 인용문에서 나카무라본의 '金琢', '殘忍히', '長霖히라'가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에는 각각 '김뎐', '잔잉이(히)', '댱마히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오카쿠라본 혹은 동양문고본의 필사자는 '金琢'을 '김뎐'으로, '殘忍히'를 '잔잉이(히)'로, '長霖히라'를 '댱마히라'로 각각 바꾸어 필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더구나 오카쿠라본은 일본인의 조선어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동양문고본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기와 같은 전환은 더욱 어렵다고 본다. 아마도 '김뎐', '잔잉이(히)', '댱마히라' 등으로 표기된 다른 선행본을 참고하거나, 그것을 대본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의 예를 더 보기로 하자.

졈〃漸〃 ᄌᆞ라매 얼굴이 곳지 붓그리며 ᄃᆞᆯ月이 무광無光ᄒᆞ고 침어낙안지ᄐᆡ沈魚落雁之態 비比ᄒᆞᆯᄃᆡ 업ᄉᆞ며 ᄒᆞᄂᆞᆫ 일이 아히 ᄀᆞᆺ디 아니ᄒᆞ니 김뎐 부쳬 ᄋᆡ지듕지愛之重之ᄒᆞ나(나카무라본, 상, 5뒤)

졈〃漸〃 ᄌᆞ라매 얼굴의 고은믄 ᄭᅩᆺ치 붓그리며 ᄃᆞᆯ이 무광無光ᄒᆞ고 짐어낙안지용沈魚落鴈之容 폐월수화지ᄐᆡ閉月羞花之態를 이로 긔록지 못ᄒᆞᆯ너라 김뎐 부쳐 ᄋᆡ지즁지愛之重之ᄒᆞ나(오카쿠라본, 7뒤)

졈〃漸〃 ᄌᆞ라매 얼글의 고으믄 ᄭᅩᆺ치 붓그리며 ᄃᆞᆯ이 무광無光ᄒᆞ고 짐어낙안지용沈魚落雁之容 폐월수화지ᄐᆡ閉月羞花之態를 이로 긔록지 못ᄒᆞᆯ너라 김뎐 부쳐 ᄋᆡ지듕지愛之重之ᄒᆞ나(동양문고본, 6앞)

앞 인용문은 어린 숙향의 인물 형상이 서술된 부분인데, 서술 행문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이 나카무라본을 저본으로 해서는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고 본다.

요컨대 이상의 사례를 볼 때,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은 나카무라본을 저본으로 필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행본을 대상으로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의 관련성

다음으로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의 관계를 살펴보자. 세 이본의 친연성을 고찰한 위의 서술 과정에서 확인되듯이,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은 거의 같은 이본이다. 축약과 생략의 지점이나 현상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내용 전체의 서술 행문도 거의 일치한다. 또한 오류가 나타나거나 표현이 달라진 부분에서도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은 서로 일치한다. 예를 들어보겠다.

〈숙향전〉에서 이선은 마고할미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숙향을 찾아다니다가 장승상 집에서 장승상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 李郎 曰 小子 淑香을 爲ᄒᆞ여 千里 밧긔 와숩다가 空還ᄒᆞ오니 ᄇᆞ라건대 畫像을 ᄑᆞᄅᆞ쇼셔 丞相 曰 夫人이 ᄉᆞ랑치 아니ᄒᆞ면 갑슬 밧고 ᄑᆞᆯ니잇가 져 畫像을 ᄆᆞ자 업시 ᄒᆞ오면 夫人이 一定 用慮ᄒᆞ여 病 드로실 거시오니 못 밧줍ᄉᆞ올소이다(나카무라본, 상, 61뒤-62앞)

> 니랑 왈 쇼ᄌᆡ 슉향을 위ᄒᆞ여 쳔리 밧긔 왓숩다가 공환空還ᄒᆞ오니 바라건ᄃᆡ 화샹을 ᄑᆞ르쇼셔 승샹 왈 부인이 ᄉᆞ랑치 아니ᄒᆞ면 갑슬 밧고 ᄑᆞᆯ녀니와 화샹을 ᄆᆞ져 업시ᄒᆞ면 부인이 일뎡 념녀ᄒᆞ여 병들 거시오니 못 드리옵네다(오카쿠라본, 87앞뒤)

위 인용문은 이선이 장승상에게 숙향의 화상을 팔라고 하자, 장승상은 그것마저 없으면 자신의 부인이 병들 것이니 화상을 줄 수 없다고 대답하는 부분이다. 해당 장면에서 장승상은 이선의 간절한 말과 풍모를 보고 숙향을 더

욱 그리워하고, 이선은 이선대로 숙향의 부재에 큰 실망을 한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이선은 숙향의 화상을 그저 달라고는 할 수 없어 그것을 팔라고 할 수 있지만, 장승상은 값을 주면 화상을 팔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장승상은 숙향을 보듯이 고이 간직하고 있던 화상을 돈을 준다고 해서 널름 팔 위인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위 인용문의 줄친 부분 중, 나카무라본의 표현이 타당하고 오카쿠라본의 표현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33] 그런데 동양문고본 역시 오카쿠라본과 정확히 일치한다.[34]

또한 이선이 숙향을 찾지 못하고 실의에 빠진 채 이화정으로 돌아오자 마고할미는 거짓으로 놀라며 "불셔 다른 ᄃᆡ 배필을 어더 갓ᄉᆞᆸ더니잇가 엇지 못 보시니잇고"(나카무라본, 상, 68앞뒤)라고 묻는다.[35] 그런데 이런 서술이 오카쿠라본에는 "슉향은 죽엇ᄉᆞᆸ더니잇가 엇지 못 보섯스니잇가"(오카쿠라본, 95뒤)와 같이 달라졌는데, 동양문고본 역시 오카쿠라본과 정확히 동일하다.[36]

---

33) 이대본에도 "노부의 부인니 허락ᄒᆞ면 엇지 갑실 의논ᄒᆞ리요 져 쵹ᄌᆞ를 마ᄌᆞ 업시 ᄒᆞ면 일졍 부인니 병 나 죽을 거시니 그난 못ᄒᆞ리로다"(숙향전전집1, 170면)로 되어 있고, 정문연a본에도 "부인 곳 안니면 그져도 드릴 거시로되 화샹를 마ᄌᆞ 업시 ᄒᆞ오면 부인니 반드시 죽을 거시니 ᄑᆞ지는 못ᄒᆞ리로쇼니다"(숙향전전집1, 412면)로 되어 있어, 나카무라본이 본래의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34) "나랑 왈 쇼ᄌᆡ 슉향을 위ᄒᆞ여 쳔리 밧긔 왓ᄉᆞᆸ다가 공환空還ᄒᆞ오니 ᄇᆞ라건ᄃᆡ 화샹을 ᄑᆞ르쇼셔 승샹 왈 부인이 ᄉᆞ랑치 아니ᄒᆞ면 갑슬 밧고 팔녀니와 화샹을 ᄆᆞ져 업시ᄒᆞ오면 부인이 일뎡 념녀ᄒᆞ여 병들 거시오니 못 드리옵네다"(동양문고본, 65앞).

35) 이 부분이 이대본에는 "할미 거즛 놀나 왈 슉향이 발셔 다른 ᄉᆞ람의 ᄇᆡ필이 되여간고로 못 본잇가"(숙향전전집1, 174면)와 같이 서술되어 있고, 정문연a본에는 "할미 짐즛 놀나는쳬 ᄒᆞ고 왈 그러면 쥭어쩐이닛가 발셔 다른 ᄃᆡ로 갓쩐잇가"(숙향전전집1, 416면)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36) "슉향은 죽엇ᄉᆞᆸ더니잇가 엇지 못 보섯스니잇가"(동양문고본, 71앞). 이와 같이, 서술 표현이 나카무라본과는 다르면서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이 서로 일치하는 예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후일後日의 도라와 우리 모녀母女의 ᄒᆡ골骸骨이나 갈므쇼셔葬(나카무라본, 상, 7앞)
후일의 도라와 우리 모녀母女의 ᄒᆡ골骸骨이나 감추어 쥬쇼셔(오카쿠라본, 9뒤-10앞)
후일後日에 도라와 우리 모녀母女의 ᄒᆡ골骸骨이나 감추어 주쇼셔(동양문고본, 8앞)

됴흔 웃밥의 ᄊᆞ이여 복福이 도桃되여 그런 블측不測ᄒᆞᆫ 일을 ᄒᆞ여 하ᄂᆞᆯ 깃ᄐᆞ신 부인夫人조차 네汝지휘指揮예 승샹丞相의 ᄎᆡᆨ責을 보시개 ᄒᆞ노뇨(나카무라본, 상, 24뒤)
됴흔 웃밥의 싸이여 복福에 지ᄂᆡ믹 그런 블측ᄒᆞᆫ 일을 ᄒᆞ여 하ᄂᆞᆯ 깃드신 부인ᄆᆞ져 널노 인ᄒᆞ여 승샹의 ᄎᆡᆨ을 보시개 ᄒᆞᄂᆞ뇨(오카쿠라본, 35앞)

이와 같이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은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전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 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를 들어보자.

娘子 보고 눈믈을 디며 니ᄅᆞ되 내 眞珠시 올ᄉᆞ오니 이제란 할믜 ᄆᆞᅀᆞᆷ으로 ᄒᆞ쇼셔 ᄒᆞ더라(나카무라본, 상, 70앞)

낭ᄌᆡ 보고 눈믈을 지우며 니르되 내 진쥬시 올ᄉᆞ오니 이제는 할미 말ᄉᆞᆷ으로 ᄒᆞ쇼셔 ᄒᆞ더라(오카쿠라본, 99뒤)

낭ᄌᆡ 보고 눈믈을 지으며 니르되 내 진쥬시 올ᄉᆞ오니 이제는 할미 ᄆᆞᅀᆞᆷ으로 ᄒᆞ쇼셔 ᄒᆞ더라(동양문고본, 74앞뒤)

위 인용문은 마고할미가 이선이 가지고 있던 숙향의 진주를 숙향에게 보이자, 숙향은 그것이 제 것임을 확인하고 후일의 일은 마고할미 마음대로 처분하라는 내용의 서술이다. 따라서 위 인용문의 줄친 부분 중에 "말슴"으로 된 오카쿠라본의 서술은 오류임이 확인된다. 그런데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의 관계만을 따져보면, 오카쿠라본의 필사자가 동양문고본을 저본으로 필사하다가 "ᄆᆞ음"을 "말슴"으로 잘못 필사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동양문고본의 필사자가 오카쿠라본을 저본으로 필사하다가 "말슴"을 "ᄆᆞ음"으로 고쳐서 필사하기에는 해당 문면을 기억하고 있거나 다른 대본을 참고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위의 사례는 오카쿠라본이 동양문고본을 저본으로 필사했을 가능성만 성립한다. 다음 사례도 이와 마찬가지다.

니샹셔는 므슨 일노 그 계집의 다짐ㅁ書을 못 밧ᄌᆞᆸ기로 일홈과 나흘 모ᄅᆞ며 므슨 연괴 잇서 그리ᄒᆞ신지 ᄌᆞ셰히 모르오나(오카쿠라본, 104앞)

됴흔 옷밥의 싸이고 복福에 지내ᄆᆡ 그런 불측ᄒᆞᆫ 일을 ᄒᆞ여 하ᄂᆞᆯ ᄀᆞᆺ트신 부인이 ᄆᆞ져 널노 인ᄒᆞ여 승샹씌 칙을 보시개 ᄒᆞᄂᆞ뇨(동양문고본, 27앞)

니샹셔는 므슨 일노 그 계집을 죽여달나 칭념ᄒᆞ엿ᄉᆞ오니잇가 원이 답왈 그 계집의 다짐을 못 밧즙기로 일홈과 나흘 모르며 므슨 연괴 잇서 그리ᄒᆞ신지 ᄌᆞ셰히 모르오나(동양문고본, 77뒤)

위 인용문은 어떤 여성이 낙양 관아에서 수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김전의 부인이 김전에게 이상서가 왜 그 여성을 죽이려 하느냐고 묻는 장면이다.[37] 양자를 비교해 보면, 동양문고본의 줄친 부분이 오카쿠라본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오카쿠라본이 동양문고본을 저본으로 해서 필사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요컨대, 이상의 사례만을 보면, 오카쿠라본은 동양문고본을 저본으로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품 문면을 살펴보면, 오카쿠라본이 동양문고본을 필사한 것으로 보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보겠다.

쇼비小婢 ᄉᆞᆯ아갈 셰 업ᄉᆞ와 외어 니르되 어이 부인씌 하직도 아니ᄒᆞ고 가ᄂᆞᆫ다 ᄒᆞ오니 나를 구박ᄒᆞ여 내치는ᄃᆡ 하직ᄒᆞᆫ여 무엇ᄒᆞ리 깁픈 방의 갓치여 잇다가 밧긔 나오니 농籠의 드러던 새 몸 ᄀᆞᆺ튼여라 ᄒᆞ오며 엇단 ᄉᆞ나희와 둘이 가오며 서로 손목 잡고 희롱戱弄ᄒᆞ며 가더이다(오카쿠라본, 46앞)

쇼비小婢 ᄉᆞᆯ아갈 셰 업ᄉᆞ와 외어 니르되 어이 부인씌 하직ᄒᆞ고 가ᄂᆞᆫ다 ᄒᆞ오니 나를 구박ᄒᆞ여 내치는ᄃᆡ 하직ᄒᆞ여 무엇ᄒᆞ리 깁픈 방의 갓치여 잇다가 밧긔 나오니 농籠의 드러던 새 몸 ᄀᆞᆺ튼여라 ᄒᆞ오며 엇단 ᄉᆞ나희과 둘이 가오며 서로 손목 잡고 희롱戱弄ᄒᆞ며 가더이다(동양문고본, 34뒤-35앞)

위 인용문은 사향이 숙향을 모함하여 내쫓는 과정에서, 사향이 숙향의 행동을 장승상 부인에게 거짓으로 고하는 장면의 일부이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 오카쿠라본의 서술은 타당하고 동양문고본의 서술은 누락으로 인해 오류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오카쿠라본의 필사자가 일본인임을

37) 참고로 나카무라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李尙書ᄂᆞᆫ 므슴 일노 며ᄂᆞ리을 주겨 달나 稱念ᄒᆞ여ᄉᆞ오며 그 계집은 엇던 사ᄅᆞᆷ의 子息이라 ᄒᆞ오며 나흔 몃치며 일홈은 무어시라 ᄒᆞ더니잇가 員이 答曰 그 계집이 李仙의 妾이 아니오 안히오매 다딤을 못 밧즙기로 일홈과 나흘 뭇지 아니ᄒᆞ엿ᄉᆞ오나"(나카무라본, 상, 75뒤). 이를 근거로 보면, 상기 동양문고본에도 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안하면 동양문고본을 필사하면서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동양문고본의 필사자가 오카쿠라본을 저본으로 필사하다가 누락을 범한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

노옹왈 그러면 져적의 예 와 불 타 죽은 아희로다 네 보고져 ᄒᆞ거든 져 ᄌᆡ 무더기예 가 ᄲᅢ ᄃᆞᆫ 거시나 보고 가거라 ᄒᆞ거ᄂᆞᆯ 니랑이 나아보니 의복 ᄐᆞᆫ 거슨 이스되 ᄲᅢ 탄 거슨 업거ᄂᆞᆯ 도라와 다시 절ᄒᆞ고 비러 왈 슉향이 분명히 블 타 죽엇스면 어이 ᄲᅢ 싼 거슨 업숩고 의복 탄 ᄌᆡ만 잇ᄂᆞ니잇가(오카쿠라본, 90뒤-91앞)

노옹왈 그러면 져적의 예 와 불 타 죽은 아희로다 네 보고져 ᄒᆞ거든 져 ᄌᆡ 무더기예 가 ᄲᅢ 탄 거슨 업거ᄂᆞᆯ 도라와 다시 절ᄒᆞ고 비러 왈 슉향이 분명히 블 타 죽엇스면 어이 ᄲᅢ 싼 거슨 업숩고 의복 탄 ᄌᆡ만 잇ᄂᆞ니잇가(동양문고본, 67뒤)

위 인용문은 이선이 숙향을 찾아다니다가 노전에서 화덕진군을 만나 대화할 때의 서술 부분이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 오카쿠라본의 줄친 부분이 동양문고본에서 누락되어 동양문고본의 문맥에 오류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도 오카쿠라본이 동양문고본을 필사하면서 줄친 부분을 보충했다기보다는 동양문고본이 오카쿠라본을 필사하던 중에 누락한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나도 네 ᄋᆡᄆᆡᄒᆞᆫ 줄을 아니 그저 노하 보내고져 ᄒᆞ나 일국一國 집권執權ᄒᆞ는 ᄌᆡ상의 칭념稱念을 거스지 못ᄒᆞ리라 ᄒᆞ고 동혀 깁흔 물의 노흐라 ᄒᆞ시니 이ᄯᅢ 댱시 ᄌᆞᆷ을 깁피 드니 믄득 슉향이 압페 와 절ᄒᆞ고 술피 울며 알외되(오카쿠라본, 103앞)

나도 네 ᄋᆡᄆᆡᄒᆞᆫ 줄을 아니 그저 노하 보내고져 ᄒᆞ나 일국一國 집권ᄒᆞ는 ᄌᆡ상의 칭념稱念을 거스치 못ᄒᆞ리라 ᄒᆞ고 동혀 깁픈 물의 노흐라 ᄒᆞ시니 이ᄯᅢ 원의 실ᄂᆡ ᄌᆞᆷ을 깁피 드니 믄득 슉향이 압헤 와 절ᄒᆞ고 술피 울며 알외되(동양문고본, 76뒤-77앞)

위 인용문은 김전이 이상서의 명을 받아 숙향을 태형하다가 다시 물에 던지려고 하던 차에, 김전의 부인이 꿈속에서 숙향을 만나는 장면의 서술이다.

위 인용문에서 김전의 부인을 동양문고본에서는 “원의 실ᄂᆡ”라고 하였고 오카쿠라본에서는 “댱시”라고 하였는데, 김전이 현재 낙양 수령으로 재임 중이고 김전의 부인이 장씨이니, 둘 다 옳은 표현이다. 그런데 오카쿠라본이 동양문고본을 저본으로 필사했다면, 그대로 “원의 실ᄂᆡ”라고 할 것이지 굳이 그것을 “댱시”라고 고칠 이유가 없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동양문고본이 오카쿠라본을 저본으로 필사했을 경우에도, “댱시”를 “원의 실ᄂᆡ”로 바꿀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상으로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전제하고 양자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오카쿠라본이 동양문고본을 저본으로 삼아 필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저본으로 삼은 것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5. 〈별숙향전〉 계열의 형성 과정

그렇다면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의 친연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어떤 선행본을 바탕으로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이 따로 만들어졌다는 관점을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오카쿠라본, 동양문고본, 나카무라본의 상호 친연성을 고려할 때, 어떤 선행 모본에서 나카무라본, 오카쿠라본, 동양문고본이 각각 따로 파생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어떤 선행 모본은 나카무라본과 같이 〈숙향전〉의 전 내용을 갖춘 완본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러한 완본의 저본에서 나카무라본이 만들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완본을 바탕으로 축약과 생략이 나타나는 이른바 절략본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은 상호 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럼에도 전체 내용과 서술 행문만 보면 같은 이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는 이본인데, 굳이 완본을 대상으로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 이본을 두 개나 만

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완본에서 절략본이 하나 만들어지고, 다시 그 절략본을 베낀 이본이 탄생하는 것이 이본 파생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 같이, 선행 모본을 대상으로 거의 같은 이본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또 절략본 두 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 같이 거의 동일한 내용과 서술을 보이는 이본 두 개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제반 의혹을 고려할 때, 나카무라본, 오카쿠라본, 동양문고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탄생한 것으로 짐작된다. 즉, 어떤 공통 선행본에서 현 나카무라본과 특정 절략본이 각각 만들어졌고, 다시 그 특정 절략본에서 현재의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이 각각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현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의 유사성으로 볼 때,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의 필사자는 선행 절략본을 거의 그대로 베끼면서 필사했고, 그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발생했다고 본다.

한편, 세 이본의 공통 선행본이 존재했고 그 선행본에서 나카무라본, 오카쿠라본, 동양문고본이 파생되었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친연성이 생긴 것이라는 점, 세 이본 중에서 나카무라본은 내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완본이지만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은 절략본이라는 점, 완본인 나카무라본의 제명이 "別淑香傳"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완본인 나카무라본을 대표본으로 정하고 이들 세 이본을 '〈별숙향전〉 계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38]

6. 맺음말

본고에서는 일본에 소장된 〈숙향전〉 이본 중에서 나카무라본, 오카쿠라본,

38) "別淑香傳"이란 제명은 나카무라본이 만들어지면서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 선행본의 제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일본에는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의 후손이 오다의 전적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다가 1793년에 필사한 "別淑香傳"(2책)이 있다고 한다. 아마도 이것이 나카무라본의 선행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다 이쿠고로 후손가 소장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허지은, 「쓰시마 朝鮮語通詞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의 생애와 대외인식-『通譯酬酢』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0, 동북아역사재단, 2010, 315-356면 참고.

동양문고본의 서지사항, 서술 표현 및 내용, 세 이본의 상호 관계 등을 자세히 고찰하였다.

나카무라본은 조선어 통사의 마지막 세대 중 한 사람인 나카무라 쇼지로가 1875년과 1876년에 부산 초량 왜관에서 필사한 것으로서, 상·하 2책으로 되어 있으며, 제명은 "別淑香傳"이다. 이 나카무라본은 오자나 문맥의 오류 등이 일부 나타나긴 하나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숙향전〉 이본 중에서 가치가 높은 심수관가 소장본, 이대본, 정문연a본 등과 비교했을 때, 서술 행문 및 내용 구성 면에서 가장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 선본(善本)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오카쿠라본은 오카쿠라 요시사부로가 구득했거나 직접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 종이에 행별로 글자 수를 정확히 맞추는 등 일본인 특유의 필사 방식을 보여주는 이본이다. 내용을 보면, 작품의 초반부터 이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대체로 타 이본과 비슷하지만, 이선의 부모가 무자(無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장면부터 내용의 끝까지는 축약 및 생략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이본이다. 그럼에도 제명은 "淑香傳 完"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제명을 고려할 때, 이 이본의 축약 및 생략은 의도적으로 행해진 것이며, 그런 점에서 오카쿠라본은 절략본(節略本)이라고 볼 수 있다.

동양문고본은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된 필사본으로서, 서술 행문과 내용 구성 면에서는 오카쿠라본과 동일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호 간의 관계가 밀접하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두 이본 사이에 직접적인 수수관계는 없고, 각각의 필사자가 동일 선행본을 베끼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동이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은 나카무라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 이본의 서술 행문을 비교해 보니, 서로 일치하는 특징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일치성은 이들 세 이본의 뿌리가 동일하다는 점과 관계된다. 본고에서는 세 이본의 밀접성을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즉, 세 이본의 공통 선행본이 존재했고, 그 선행본에서 나카무라본과 어떤 절략본이 먼저 생겼고, 다

시 그 절략본에서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이 각각 파생되었기 때문에 세 이본이 지금과 같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카무라본은 완본이지만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은 절략본이라는 점, 완본인 나카무라본의 제명이 "別淑香傳"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상기 세 이본을 '〈별숙향전〉 계열'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자료

나카무라 쇼지로(中村庄次郎) 필사 〈別淑香傳〉 上·下, 도쿄대학 소창문고 소장.

동양문고본 〈淑香傳〉, 일본 동양문고 소장.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 필사 〈淑香傳〉, 쯔쿠바(筑波) 대학 오카쿠라 문고 소장.

논저

김진영·차충환 편저, 『숙향전전집』1·2, 박이정, 1999.

동양문고 편, 『東洋文庫 朝鮮本 分類 目錄』, 일본: 동양문고, 1939.

유춘동, 「일본 쓰쿠바대학[筑波大學]의 조선 관련 서적과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의 장서」, 『동양학』 69,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7.

장효현·윤재민 외, 『愛情世態小說』,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정병설, 「일본인의 한국어 교재 숙향전-쯔쿠바(筑波) 대학 소장본을 중심으로」, 『문헌과해석』 26, 문헌과해석사, 2004.

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정승혜, 「小倉文庫 所藏 나카무라 쇼지로 資料의 國語學的 考察」, 『일본문화연구』 26, 동아시아일본학회, 2008.

曺喜雄·松原孝俊, 「『淑香傳』 형성연대 재고-일본측 자료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차충환, 『숙향전 연구』, 월인, 1999.

허지은, 「쓰시마 朝鮮語通詞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의 생애와 대외인식-『通譯酬酢』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0, 동북아역사재단, 2010.

기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사이트(http://kostma.korea.ac.kr/)

【Abstract】

A Study on th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Byeol-sukhyangjeon (別淑香傳) series in Japan

Cha, Chung-hwan*

Among the copies of Sukhyangjeon 淑香傳 in Japan, this paper examines the versions of Nakamura, Okakura, and Dongyang Bookstore, descriptive expressions and contents, and the interrelationship of three versions. The Nakamura version was transcribed by Shojiro Nakamura 中村庄次郎 at the Choryang 草梁 Waegwan(倭館, the office of a Japanese interpreter) in Busan in 1875 and 1876. It consists of two volumes, upper and lower, and the title of the work is Byeol-sukhyangjeon. This Nakamura version has the most complete appearance in terms of content and description in the Sukhyangjeon versions. Therefore, the value is very high. Okakura version is presumed to have been obtained by Yoshisaburo Okakura 岡倉由三郎 or transcribed directly. It is an abbreviated and omitted version in the latter half of the content. The Dongyang Bookstore version is a manuscript held at the Dongyang Bookstore in Japan. It is almost identical to the Okakura version in terms of content and composition. It seems to be because each manuscript has transcribed the same preceding copy. Okakura version and Dongyang Bookstore version are also closely related to Nakamura's. When comparing the description and content of the series, the characteristics that match each other stand out. This consistency is due to the same roots of these series. There was a common preceding text of the three copies, and from that preceding text, Nakamura and a certain omitted version were made first. Then again, the Okakura version and Dongyang Bookstore version were derived from the omitted version. As a result, the three copies were able to have the same close relationship as they are now. Nakamura version, which has a complete form in the description and content, is called Byeol-sukhyangjeon, so the series can be called Byeol-sukhyangjeon series.

Keywords: Japan, Byeol-sukhyangjeon, Nakamura version, Okakura version, Dongyang Bookstore version, omitted version, Byeol-sukhyangjeon series

*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 Hee Univ..

접수일: 2025.06.30. ‖ 심사일: 2025.08.06. ‖ 게재확정일: 2025.08.20.